



직영·수탁시설장 및 부장 연수

연수 일정표	003	
시작미사	007	Rev. 오대일 외 사제단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	015	Rev. 오대일
2013년도 교구사목지침	025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 해설	035	Rev. 오대일
2013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5대과제 해결방안	043	팀별 담당관
2012년도 고층처리위원회 사례발표	065	Rev. 오대일
모듬토의	081	모듬별
모듬토의 발표	089	
총평	095	Rev. 정성환
파견미사	103	Rev. 정성환 외 사제단
‘신앙의 해’ 선포의 배경과 의미	111	부록

직영 · 수탁시설장 및 부장 연수

연수일정표

	시간	내용	담당
11월 19일	08:30	출발	
[금요일]	10:00	시작미사	오대일
	10:40	2013년도 교구 사목교서, 사목지침	오대일
	11:40	점심식사	
	13:00	2013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5대과제 해결방안	팀별발표
	15:00	2012년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발표	오대일
	16:00	모듬토의	
	19:00	저녁식사	
11월 20일	07:00	아침식사	
[토요일]	08:00	개인 신변정리 및 휴식	
	08:30	모듬별 발표 및 총평	정성환
	11:00	파견미사	정성환
	12:00	점심식사	
		서울로 출발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시작미사

Rev.오대일 외 사제단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시작미사

(백)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오대일 신부 외 사제단 |

입당성가

주님과 나는

I.B.Sergel

1 주님 과 과 나 는 합 깨 결 어 가 며 지 나 간
2 주님 하 과 고 년 는 가 할 깨 결 어 가 가 며 지 나 간
3 협 하 과 고 년 는 가 할 깨 결 어 가 가 가 며 지 나 간

의 몸 에 속 사 영 인 니 다 손 을 맞 잡 고 산 과 들 을
의 몸 에 속 사 영 인 니 다 손 을 맞 잡 고 산 과 들 을
의 몸 에 속 사 영 인 니 다 손 을 맞 잡 고 산 과 들 을

따 라 천 구 가 되 어 전 어 감 니 다 손 을 맞
라 따 영 구 원 가 되 어 전 어 감 니 다 손 을 맞
라 따 영 구 원 가 되 어 전 어 감 니 다 손 을 맞

잡 고 산 과 들 을 따 라 천 구 가 되 어 결 어 감 니 다
잡 고 산 과 들 을 따 라 천 구 가 되 어 결 어 감 니 다
잡 고 산 과 들 을 따 라 천 구 가 되 어 결 어 감 니 다



제 1 독서

<나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구원되었다(따름 노래 '성전 오른쪽에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2. 1-2. 8-9. 12<또는 1코린 3. 9c--11. 16-17>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이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래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명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 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옅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6(45), 2-3, 5-6, 8-9(◎5)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복음환호송 2역대 7,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 13-22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쳐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없음>



신자들의 기도

- 사회사목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이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연수에 참여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Mozz

기쁜 마음으로

1.나	의	생	명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감	사
2.나	의	살	을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선	한
3.나	의	음	성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주	를
4.나	의	재	능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당	스
5.나	의	마	능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영	운

하	-	는	맘	으	로	찬	미	하	-	게	하	소	서
일	-	을	하	도	록	나	를	인	-	도	하	소	서
찬	-	미	하	도	록	깨	어	있	-	게	하	소	서
영	-	광	위	하	여	봉	사	하	-	게	하	소	서
토	-	복	당	신	을	사	랑	하	-	게	하	소	서

영성체송 1베드 2,5 참조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156 한 말씀만 하소서

Labat



1. 사 랑 의 주 여 주 님 을 모 - 시 기 에 부 당 하 오 나 한 말 - 씬 만 하 소
 2. 이 성 체 안 에 숨 어 계 신 - 예 수 여 뻬 연 약 한 죄 인 하 였 디 - 어 경 배 하
 3. 이 크 신 은 총 일 치 이 루 - 는 기 뻬 세 상 끝 날 에 주 님 - 을 뵈 게 되



서 내 영 혼 - 이 조 찰 케 되 리 - 이 다 성 체 성 혈 로 우
 리 떡 과 술 - 의 형 상 에 주 계 - 심 을 민 음 으 로 만 깨
 리 인 류 구 - 원 위 하 여 죽 기 - 까 지 다 쓴 아 주 신 지



리 게 오 - 시 어 영 원 한 생 - 명 주 - 는 신 - 비 한 사 랑 새 생 명 주 - 신
 께 게 되 - 오 니 권 건 한 신 - 영 내 - 게 내 - 려 주 시 어 생 생 원 히 주 - 신
 크 한 사 - 랑 에 무 단 이 마 - 음 감 - 동 되 - 어 비 오 니 성 부 여 나 - 의



인 - 혜 감 - 사 하 - 리 다
 안 - 에 살 - 게 하 - 소 서
 복 - 현 받 - 아 주 - 소 서

파견성가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Trad. Melody

Andantino
mp

1.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나님께 신이 계시는 곳엔 언제나 마음속엔
 2. 미약한 우리 인간의 생애를 주님만이 찾으신니 애뜻한 우리의 기도
 3. 이 세상 모든 행한 죄만 주께 회개하셨을 뿐이니 창된 행복의 근원

그리머살리라
 들어주소서
 하느님편이리

우리의 모든 소망 이뤄지는 곳-

- 영원한 천상행복 누리게 하소서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 라테라노에 있는,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이다. 오늘 축일은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성당은 현재의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성당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거의 천 년 동안 역대 교황들이 거주하던, 교회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라테라노 대성전의 봉헌 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모(母)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

Rev.오대일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신앙의 해 -

| 오대일 신부_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를

비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구민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6월 25일 착좌미사로 서울대교구 제14대 교구장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13대 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교구장으로 봉사하게 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 교구의 교구장 직무가 저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느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협조와 기도에 힘입어서 제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서는 2011년부터 사목교서를 통해 2020년을 전망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 교서「믿음의 문」¹⁾을 발표하시면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뜻을 이어 받아 2013년은 신앙의 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복

1)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믿음의 문」, 2011. 10. 11.



음화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먼저 교회 자신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²⁾ 교회에 속한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친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에로 부르십니다. “하느님께 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쑥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³⁾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초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신앙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례 때에 죄와 마귀와 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응답과 삶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인지 자주 되돌아보고 성찰하여야 합니다. 순례하는 교회는 늘 자신이 종말의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성실히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2012년에 발간된『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⁴⁾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⁵⁾

2) 교황 바오로 6세, 교황권고「현대의 복음 선교」, 2007(3판 2쇄), 15항.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3판 4쇄), 2항.

4)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 2012.

5)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갖고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1년 서울대교구의 경우에는 주일미사 참여자들 가운데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입교한 사람들이 약 36%나 됩니다. 다른 한편 매년 거의 입교자의 숫자만큼 냉담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중에는 이단적 교설에 빠져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신앙에 입문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라 버린 것입니다.

2011년 서울대교구의 신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인 143만 여명인데,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23.7%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에는 50~70대가 약 62%가 넘습니다. 어린 세대가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노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석률은 매우 저조합니다(20대 6.6%, 30대 7.4%). 젊은 신자들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자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이들은 10.3%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이들은 57.4%나 됩니다. 그들 중에서 매일 아침저녁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28.1%에 불과하고, 거의 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이들이 48.7%에 이릅니다. 또한 약 13%는 고해성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멀리함으로써 자칫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등질 위험성이 큼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신자는 주일미사 참여자들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사도 2, 47) 얻었습니다. 하지만 ‘허약한 신앙’으로는 자신은 물론 세상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새로운 한 해 동안 합심하여 함께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 17)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고, 성경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 교부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았을 때 축성된 빵의 한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듯, 전례 중에 듣는 하느님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⁶⁾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가르침, 인생에 관한 건전한 지식과 구원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 성령의 파견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신앙의 증거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원천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필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친구간의 우정이 대화를 통해 깊어지듯이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교도 기도를 통해 더욱 돈독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고, 모세 역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으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사명을 이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21항.



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결정적으로 당신의 수난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할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과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자주 기도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거룩하게 봉헌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 하고, 삼종기도를 통해 시간을 성화하며, 식사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시다. 하느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이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톨릭 신앙을 알게 되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로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된 2012년 10월 11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며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반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은 ‘20세기의 교회에 내려진 큰 은총’⁷⁾이며 순례하는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교회가 이천년 동안 받아들이고 지키고 제공했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또 신학자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신앙에 관하여 성찰하고 발전시켜 온 수많은 방법들과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성실히 공부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새 천년기」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제1판 2쇄), 57항.



넷째, 미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⁸⁾입니다. 미사성제의 은총으로 주님과 일치체를 이루고 신자들 상호간의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미사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빵,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 16-17)

우리는 미사 중에 고백하는 신경(信經)을 통해서도 일치를 이룹니다. 미사 전례에서 사용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가톨릭교회가 이천년간 간직해온 신앙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미사 중에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신앙의 선조들과 일치체를 이루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일치체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은 튼튼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더욱 정성껏 봉헌하기 위해 미사 전에 성실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또한 성체께 대한 공경은 미사 중에는 물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체를 매우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합당한 흠숭을 드리기 위하여 현시하거나 또는 장엄한 행렬 중에 함께 모심으로써 공경을 드렸습니다. 성체께 대한 마땅한 흠숭을 드리기 위해 성시간과 성체강복에 자주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5, 6)이고,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야고 2, 17)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⁹⁾ 사랑의 실천이 없는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0항.

9) 교황 베네딕토 16세, 「믿음의 문」, 14항.



신앙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쉽게 좌절되고 맙니다.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실천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당신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라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신앙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다섯 가지 표어로 요약합니다.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3.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2013년 한 해 동안 교구민 모두가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선사목에서 수고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신자들 각자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와의 친교가 깊어져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정을 갖고 새롭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주보이시며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의 순교 성인들께
우리를 위해 전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2년 대림절에

유영수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2013년도 교구사무지침

Rev.오대일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 오대일 신부_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기초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래의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본당에서는「신앙의 해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서 사목계획을 수립하여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아침·저녁 기도, 삼종기도, 식사 전·후 기도 등 기본적인 기도를 강조하여 주십시오.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또한 신자 상호간에 일치할 수 있도록, 또한 성체신심의 고양을 위해 성시간과 성체강복을 강조하여 주십시오.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일반교육>

1.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될 ‘자신의 성경 구절’을 갖도록 합니다.
2. 일상의 기도생활(아침·저녁 기도, 삼종기도, 목주기도, 자비의 기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체험’을 이루도록 합니다.
3.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도록 합니다.
4.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인지하여 이웃과 후손들에게 ‘신앙 이어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교전례사목>

1. 해외 선교와 후원을 위해 사목적 역량을 모아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2. 함께하는 여정을 통한 예비신자 교리가 하느님 계시의 내용을 온전히 예비신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들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실한 준비를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냉담 교우 회두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4.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심생활과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례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성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사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가정사목〉

1. 자기 가정의 모습을 성찰하여 가족 관계를 비롯한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 가정기도의 날을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화해와 일치 را 이루고, 가정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은총을 청하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3. 영적 독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깨닫고,
가정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하여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한 달에 한 번, 가족 미사의 날을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례를 통해
일치하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5. 하느님을 중심으로 일치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노인사목〉

1.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가톨릭교회 교리서』 중심의 노인 신앙·영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여 주십시오.
2.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교회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서울대교구 전 본당 노인분과 설치 의무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지구별 노인사목 담당 사제 선임 시 노인사목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지닌 사제를 선임하시어, 지구 노인사목 담당사제와 교구 간 연계가 강화되고 노인사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성서사목〉

1.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독려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쓰기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이나 지구차원에서 성서교육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기초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서사도직 단체들의 성서교육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사도직 단체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사오니 여러 성서공부 프로그램들이 협조적으로 연합하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본당에는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부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선포와 실천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목〉

1. 평신도 (사립)단체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기초강화를 위하여 ‘신앙의 해’ 다섯 가지 표어를 단체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체의 친교와 고유 카리스마를 지켜감과 동시에 교구, 본당, 타 단체와의 협력과 친교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 복음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직 인준 받지 못한 단체는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사무부를 통해 인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인준 받은 단체는 평협에 가입하여 교구 내 단체 간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사목〉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맞아 사목의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을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청년사목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로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그리스도인의 교육선언 3항)에 따라 각 지역, 지구, 본당의 사목자들께서는 청소년기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육자인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의무를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교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청소년사목 협조자와 봉사자들의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써 주십시오.
3. 본당을 비롯한 교회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과 신앙활동 등 청소년 사목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사목〉

새로운 복음화의 실현을 위한 ‘신앙의 해’ 를 온전히 살아갑시다!

1. 새로운 복음화의 지향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체험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에 큰 보탬이 됩니다.
2. ‘신앙의 해’ 를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응답이란 성실히 신앙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신앙의 해’ 동안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고, 신앙을 증거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다음을 실천해 주십시오.
 - 1) 신앙 실천 캠페인 “제가 하겠습니다! I Do! ”를 지속적으로 펼쳐주십시오.
 -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 "단식!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 "자선!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 2)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사도 2, 42; 콜로 2, 7)
 - 예비신자교리 시간에『가톨릭 교회 교리서』제3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리교안이나 그 밖의 자료들을 마련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별 기준에 대해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 견진교리, 신자재교육 시간 또는 사회교리주간을 활용해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 ‘사회교리주간’ 을 활성화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3)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사도 2, 46; 갈라 5, 6; 1코린 13, 13)
 -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활동 터 주소록을 활용하여 1인 1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신자들이 올바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과 심화교육(자원봉사활동 터)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봉사활동 전, 후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4) 신앙을 온전히 증거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여 주시고,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들과 각 본당 및 지구 사회사목 분과위원들이 교구 사회사목 각 위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국〉

1. ‘신앙의 해’를 맞아 서울주보에 연재되는 ‘가톨릭 교리 해설’, ‘사회 교리’ 등 ‘신앙의 해’ 관련 특집기사에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제공하는 SNS(Twitter, Facebook)와 Podcast 서비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 신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참조 <http://cc.catholic.or.kr>)
3. 교구 소식을 전하는 교계 언론(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등)을 구독하면서 교회 소식을 알고자 노력합시다. 또한 일반 언론에 나오는 교회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위원회〉

1.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쇄신을 요청하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각 본당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명분과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본당의 생명분과에서는 각 사목(예: 교육과 전례, 단체활동 등)에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수호에 대한 소명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미 생명분과를 설치하신 본당에서는 생명분과 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2.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관련 교육과 행사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본당생명수호담당자들의 양성을 위해 마련된



교구의 생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3. 각 본당에서는 교회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본당차원의 생명교육과 행사(예: 교회문헌읽기, 생명특강, 참생명학교, 임신부축복식 등)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교육(예: 생명피정 및 연수-성 생명 사랑 길)을 실시해 주십시오.
4. 각 본당의 신혼부부, 임신부 등 출산을 계획하거나 예정 중인 신자들이 생명운동의 일환인 제대혈(탯줄혈액) 기증 운동의 동참과 임종에 가까운 교우들이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돌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2013년도 사무교서해설

Rev.오대일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년도 교구사목교서 해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신앙의 해 -

| 오대일 신부_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

1. 2013년도 교구 사목교서 해설

- 1) 2020까지의 장기 정책 주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2) 2013년 사목교서 주제- “신앙의 해”
- 3) 2013년 사목교서 성구-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 2)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4) 구성과 내용

(1) 인사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구민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4대 교구장으로 착좌해 직무를 시작했고, 전임 교구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모두의 협조와 기도에 힘입어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 서 언

전임 교구장은 2011년부터 사목교서를 통해 2020년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말씀하셨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 교서 『믿음의 문』을 발표하시며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뜻을 이어받아 2013년은 신앙의 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본 론

① 새로운 복음화란?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자!

- 하느님과 친교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다.
- 2012년 발간된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 허약한 신앙으로는 자신은 물론 세상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한 해는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③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5대 표어

첫 째,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가르침을 주며, 인생에 대한 건전한 지식과 구원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 성령의 파견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신앙의 증거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원천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필사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활성화 되도록



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 째,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교도 기도를 통해 더욱 돈독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요한 순간순간 마다 기도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여 주셨고, 제자들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기도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과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자주 기도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거룩하게 봉헌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 하고, 삼종기도를 통해 시간을 성화하며, 식사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 째,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을 배웁시다.

하느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된 2012년 10월 11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며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반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은 20C의 교회에 내려진 큰 은총이며 순례하는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성실히 공부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 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미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미사성제의 은총으로 주님과 일치 이루고 신자들 상호간의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미사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빵,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고백하는 신경을 통해서도 일치를 이룹니다. 신경은 가톨릭교회가 이천년간 간직해온 신앙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신앙의 선조들과 일치를 이루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 미사 전에 성실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성시간과 성체강복에 자주 참여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이고,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증거 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실천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4) 결 어

2013년 한 해 동안 교구민 모두가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선사목에서 수고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신자들 각자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와의 친교가 깊어져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3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기초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 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본당

본당에서는 「신앙의 해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서 사목계획을 수립하여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카리타스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
-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신앙을 증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각 지구 지구장 신부님의 협조를 통해 각 지구사제회의 때, 사회복지회에 대한 소개
 - 본당 사회사목분과와 구역 반장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회에 대한 소개 강화
 - 지구사제회의, 사회사목분과 및 구역장 반장 교육 때
 - “제가 하겠습니다! I Do!” 캠페인 강조
 - “1본당 1시설 결연사업” 강조
 -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 기본교육, 강사양성교육 등”에 대한 강조

2) 사회사목부

새로운 복음화의 실현을 위한 ‘신앙의 해’를 온전히 살아갑시다!

- (1) 새로운 복음화의 지향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체험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에 큰 보탬이 됩니다.



(2) ‘신앙의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신앙이란 하느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응답이란 성실히 신앙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신앙의 해’ 동안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고, 신앙을 증거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을 실천해 주십시오.

① 신앙 실천 캠페인 “제가 하겠습니다!” I Do! ”를 지속적으로 펼쳐주십시오.

-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 "단식!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 "자선! 제가 하겠습니다! I Do"

②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사도 2, 42; 콜로 2, 7)

- 예비신자교리 시간에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리교안이나 그 밖의 자료들을 마련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별 기준에 대해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 견진교리, 신자재교육 시간 또는 사회교리주간을 활용해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 ‘사회교리주간’을 활성화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③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사도 2, 46; 갈라 5, 6; 1코린 13, 13)

-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활동터 주소록을 활용하여 1인 1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신자들이 올바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과 심화교육(센터 및 활동터)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봉사활동 전, 후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④ 신앙을 온전히 증거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여 주시고,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들과 각 본당 및 지구 사회사목 분과위원들이 교구 사회사목 각 위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2013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5대과제 해결방안

팀별 담당관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중점추진사업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1.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사회복지기관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부서
지역 중심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지역 내 시설 및 본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 개인 및 가정 발굴·지원 - 세부사업 : 아름다운사랑·아름다운나눔, 빨간밥차 운영, 새터민지원사업(선교200주년 장학회 운영) 	사회 복지팀
위기가정 청소년 학업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가정의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학업중단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 세부사업 : 장학사업(한가족, 요안나, 성모영보, 말가리다 장학회) 	사회 복지팀
카리타스 영성에 근거한 대상별 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과 시설의 복지사업을 통해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근거한 대상자,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시행 - 세부사업 : 장애인의날 흔자리축제,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설치 연구, CS노인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 가톨릭보육자문위원회 운영 	사회 복지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한 나눔 운동 강화 및 실천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나눔운동을 강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자원개발팀과의 협력 강화, 본회 커뮤니케이션 사업 간의 유기성 강화 - 세부사업 : 온라인커뮤니케이션(웹캠페인) 	교육 홍보팀
나눔 운동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지역내에서의 나눔을 통한 지역중심의 문제 해결 - 세부사업 : 일반모금, 이벤트모금, 물품모집, 지역사회모금(가톨릭 신우회 등 단체 연계사업, 중,소 기업 등의 지역중심 사회공헌지원 등), 한끼100원나누기운동, 시설과 함께 하는 공동모금사업 	자원 개발팀

<p>신앙에 기반한 자원봉사교육 강화 및 자원봉사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신앙기반의 이웃사랑실천교육 진행, 모범적 사랑의 증거자(성인, 수도자 등)에 대한 연구, 가톨릭언론매체를 통한 자원봉사 의미 및 실천문화 확산 - 세부사업 : 자원봉사 기본교육, 재교육, 청소년 교육,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 	<p>자원봉사 센터</p>
<p>자원봉사활동처 발굴 및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도움이 필요한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처(프로그램)개발발굴 및 연계강화 - 세부사업 : 정기적인 봉사활동 수요조사 및 봉사자 연계, 전문봉사단 구성 및 운영 	<p>자원봉사 센터</p>



2.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사회복지회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부서
교구·지역·본당 간의 사회사목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구와 지역, 본당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방안 마련 - 세부사업 : 지구사회사목회 운영, 지구사회사목 사제협의회 운영, 지구사회사목 네트워크 회의, 본당사회사목분과 활동현황 조사 	사회복지팀
본당의 지역사회내 나눔 실천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초대 교회공동체의 모습과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본당 차원의 친밀한 나눔과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 - 세부사업 : 본당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김장나눔 행사 	사회복지팀
본당사회사목 활성화 및 지역내 본당과 사회복지기관의 연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사회사목 활성화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 인력 발굴, 양성, 인력배치, 활용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하고, 시설종사자, 본당사회사목분과장간 연대성 향상 방안 수립 - 세부사업 : 본당사회사목 자문위원회 운영, 본당사회사목 시범본당 운영 및 매뉴얼 작업과 사례발표, 지구 내 본당과 시설 네트워크 운영매뉴얼 수립 	사회복지팀
본당사회복지 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별 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대상별 맞춤 교과 과정 구성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확립 - 세부사업 : 사회사목분과장(가톨릭사회복지학교, 사회사목분과장 교육), 구역(반)장(구역반장 사회복지특강), 전신자(건전교리, 사회복지 특강), 나눔의목상회 	교육홍보팀
본당 내 나눔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과 연계된 모금활동 강화 및 신규사업 개발 "제가 하겠습니다. I Do!" 캠페인과 연계된 신앙(자선)실천 확산 - 세부사업 : 사순절 및 자선주일 모금, 본당방문모금 	자원개발팀
본당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인식 및 체계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 중심의 지역, 재가 자원봉사활동의 인식 전환 및 확산 - 세부사업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홍보 	자원봉사센터
본당 자원봉사활동 연계강화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당의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사용 활성화 - 세부사업 : 본당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지침 마련,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모범활용본당 사례발굴, 가톨릭적 인정제도 연구 및 실행 	자원봉사센터

3. 미래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

주요사책	중점추진사업	담당부서
교회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사업 : 등록단체 운영지원, 등록단체 공모지원사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록단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직영수탁시설 정기운영점검, 신규·재수탁시설 사업기획, MOU 실행방안 기획 	사회복지팀
사회복지 현안에 따른 교회사회복지의 방향 제시 및 정책 제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정책에 따른 각 분야별 사회복지현장의 당면과제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 및 활동 지원 - 세부사업 : 운영위원회 운영, 각 분야별협의회 정책대안 논의 지원 등 - 추진방향 : 대외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활성화,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교회 사회복지 방향 제시 기능 강화 - 세부사업 : 대외협력 사업, 사회복지 정책 제안 활동, 정책토론회, 가톨릭사회복지교육자문위원회, 홍보자문 	사회복지팀 교육홍보팀
종사자들의 가톨릭사회복지 전문성과 영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영성교육의 정착을 위한 교과과정의 내실화 및 확산 - 세부사업 : 가톨릭사회복지학교(종사자과정), 사회복지종사자 피정 	교육홍보팀
직급별·직무별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직급(리더십), 직무(역량)에 알맞은 교육과정 기획 및 실시 - 세부사업 : 신입직원교육, 중간관리자교육, 시설장·부장연수, 이슈테마 특강, 인권교육, 교육기획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홍보팀
가톨릭사회복지의 내적 쇄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본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본회 쇄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실시, 제안된 주제들의 실행을 위한 후속 사업 추진 - 세부사업 : 연구조사 사업, 심포지엄 후속 연구와 사업 	교육홍보팀



<p>후원자중심 참여시스템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후원자 중심의 나눔실천 시스템 및 관리프로그램 정착화 - 세부사업 : 온·오프라인 후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배분위원회 운영 	<p>자원 개발팀</p>
<p>가톨릭형 기업사회공헌 체계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기업의 경영 및 사회공헌 시 가톨릭 교리와 가치에 근거한 활동과 참여 유도 - 세부사업: 가톨릭적 윤리기업 인증사업 	<p>자원 개발팀</p>
<p>교회영성과 자원봉사 전문성을 겸비한 강사 및 교회 중간지도자로서 관리자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영성과 자원봉사 전문성에 기반한 자원봉사 강사,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세부사업 : 강사양성교육, 강사인력풀 운영관리, 관리자양성프로그램, 2차 국가자원봉사기본발전계획에 따른 연구사업(중장기 센터 발전방향 수립/2013~2017) 	<p>자원봉사 센터</p>
<p>행정의 내실화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분야별 운영규정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나 각종 서식등을 보완하고 계속 증가하는 위수탁관련 업무의 체계화 도모 및 지속적인 소규모시설 회계업무지원을 위한 매뉴얼 작업 등을 통해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 - 세부사업 : 분야별운영규정시행관련 각종 서식등 표준화. 업무매뉴얼작업(위수탁관리, 소규모회계(세무부문)지원 등 	<p>재무 행정팀</p>



4.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부서
교회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 간의 협력과 전문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 내외의 다양한 협력활동 참여 및 지원 - 세부사업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아동복지 외 분야별 협의회 지원사업(협의회 지원의 다양화, 공유사업 및 교육지원 등), 봉사 및 문화복지단체 운영 지원, 상담·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 내 사회복지 분야별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도모 - 세부사업 :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연대회의, 연수 	재무·행정팀
교회사회복지 구성원(신자, 종사자, 수도자 및 사제) 간의 이해와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사회복지 실천 주체인 다양한 신분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 조화, 협력을 통해 보다 민주적, 영성적 사회복지실천 지향 - 세부사업 : 분야별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회 종사자 연수 지원 	사회복지팀
본회 종사자 간의 소속감 및 연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소속감 및 연대성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계획 및 진행 - 세부사업 : 신규직영수탁시설교육, 미션비전 공유사업, 시설장부장 워크숍 	교육홍보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한 적극적 소통 및 공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카리타스인 및 대중과의 소통, 공감 증진 - 세부사업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 유지보수, 모바일 페이지, SNS 페이지, 웹호스팅 관리),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소개인쇄물 제작, 나눔소식지 제작, 나눔 다이어리/주소록 제작, 언론홍보, 광고비 후원, 홍보대사 관리, CI 공모전), 자문(홍보자문) 	교육홍보팀
교회 내, 타종교, 사회복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 내외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과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 세부사업 : 대외협력 사업 	교육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교회 내 사회사목부 위원회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활동 강화를 통한 연대성 함양 - 세부사업 : 사회사목부 실무자 연대회의, 종사자 연수 	재무·행정팀



<p>모금네트웍을 통한 정보나눔 및 연대성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시설 간 모금네트웍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사업의 기반마련과 연대성 강화, 새로운 시대-새로운 방법에 대한 정보습득 및 공유 - 세부사업: 직영수탁시설 모금네트웍, 모금자문단 	<p>자원 개발팀</p>
<p>후원자와의 소통과 소속감 고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후원자와의 소통구조 마련과 소속감 고취 - 세부사업: 후원자의 날, 한끼100원 참여업체 방문, 1일1후원자 소통 	<p>자원 개발팀</p>
<p>자원봉사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국내외 자원봉사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유대통한 정보 공유 및 참여 활성화 - 세부사업 : 자문위원회,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참여 	<p>자원봉사 센터</p>
<p>자원봉사자, 자발적 참여 강사와의 소속감 및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자원봉사자, 강사들과의 소속감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확대 및 협력 강화 - 세부사업 : 기본교육 교육생 후속 모니터링, 강사교육수료자 모임, 소식지 '올리브의 향기' 발간, UN선포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 	<p>자원봉사 센터</p>



2013년도 5대과제와 해결방안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 개요

- 2011년도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워크숍에서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34개의 해결과제 제기
- 2011년도 1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에 의한 5대 해결 과제 도출
- 2012년도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계획
- 2012년도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부장 워크숍에서 의견 수렴
- 2012년도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1. 정체성 공유, 확립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직원들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 ■ 정체성 확립과 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담당자의 시설 방문 ■ 공동행사를 통한 공동체성, 정체성 확립 ■ 미션비전의 공유 : 미션비전 교육, 가톨릭사회복지 관련 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단체 시설방문 단위사업계획으로 진행 예정 : 협의회 담당자의 행사참석 및 시설방문 총 66개 기관방문 예정 ■ 분야별 1개 직영시설 운영위원으로 담당자 참여 예정 : 우리누리어린이집,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신망애의집, 화해의집, 우리집공동체,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예정 ■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추진 : 직영보호작업장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연대성, 공동체성 향상 ■ 직영시설 정기업무점검 및 특별점검 추진 예정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및 사업효과성 점검, 지원을 통해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 지구네트워크회의체 구성 : 지구별 본당과 시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네트워크 회의체를 구성, 확대하여 가톨릭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본당과의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설 정기업무점검 및 특별점검 :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및 사업효과성 점검, 지원을 통해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 등록단체 시설방문 : 법인과 시설 간의 이해 향상 ■ 직영·수탁시설 운영위원 역할과 참여 ■ 협의회 공동행사 : 각 협의회와 친교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 마련



<p>교육 홍보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비전 공유 사업 실시 : 확정된 미션·비전을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직영·수탁시설장 및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연수 : 사목교서 및 지침에 따른 사업방향 공유, 법인과의 연대성 향상을 위한 토론 진행 ■ 신입직원 교육의 강화 : 직영·수탁시설 신입직원 교육 4회차, 등록단체 신입직원 교육 1회차, 직영·수탁 어린이집 신입교사 교육 2회차 실시 ■ 신입직원 교육의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 (1일 교육 → 2일 교육으로 내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강화) ■ CI 규정의 정착을 위한 설명회 실시 : 명함, 공문서 양식 등 구체적 적용에 대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종사자과정(영성교육)을 계획하여 진행 ■ 신입직원교육, 신규직영·수탁시설교육 시 미션과 비전의 내용을 담은 교과과정 실시 ■ 신입직원교육의 강화 : 1일 → 2일 교육으로 시간과 내용 면에서의 강화 ■ CI 규정의 정착을 통한 정체성 공유 확산 : CI 공모전 ■ 미션·비전 교육 사업 실시 : 인권교육과 함께 진행 예정
<p>자원봉사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기본교육 내용으로 핵심가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미션·비전의 공유 ■ 직영·수탁 및 등록시설, 본당 및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관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카리타스 종사자로서의 자원봉사 관리방법 및 역할) 실시



2. 영성 프로그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모두의 영적인 성숙과 마음의 훈련, 양성의 차원에서 접근 ■ 기존의 프로그램의 활용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함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제시 : 영성 관련 책, 매뉴얼 제작 보급 ■ 광야체험, SLPS 프로그램, CP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종사자 연수 지원 : 전문교육 이외에 심과 영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어린이집, 청소년, 여성, 노숙인,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협의회 성지순례 지원 ■ 시설 개관기념 미사와 연말 성탄미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종사자 피정, 연수 지원 ■ 장애인복지협의회 성지순례 지원
교육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영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 준비 작업을 거쳐 차기 년도 사업에 준비를 위한 사업 반영 ■ 주교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피정 : 주교회의에서 진행하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피정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와 본당신자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진행 ■ 주교회의사회복지 피정, 나눔의 목상회 피정 등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 독려 ■ 자체 영성강화프로그램은 중장기 사업으로 기획
자원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의 자원봉사 정신을 신학적 근거와 영성에 기반하여 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 내 일일피정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1일 피정(혹은 성지순례)



3. 시설장 모임, 협의체의 역할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대한 확인과 합의 과정 필요 ■ 우리의 주요 가치인 자율성과 보조성, 연대성이 협의체 안에서 구현함. ■ 가톨릭의 고유한 교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 진행 ■ 협의회와 법인의 담당자 간의 역할의 명확화 ■ 업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명확한 이슈와 아젠다를 통한 회의 진행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단체·협의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분야별협의회의 조직정비, 정보관리, 연대 사업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예정 ■ 등록단체 지원사업으로 협의회 지원사업 증액 : 협의회 지원 예산 이외에 협의회 교육 사업과 연대사업 지원 증가(3개 협의회 1,200만원) ■ 상담·의료복지협력체계 구성 추진 :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앓은 분야의 이해, 소통, 협력을 위한 논의구조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지원사업비 증액 : 협의회 지원 예산 이외에 협의회 교육, 연대사업 지원을 통한 협의회 역할지원 ■ 담당제 활성화 : 자율·책임에 근거한 법인과 협의회의 협력적인 역할 수행 ■ 협의회 공동운영지침 수립 : 협의회별 체계 정비를 위한 정관 검토 및 운영방안 공유 ■ 분야별협의회 정책 및 방향제시를 위한 논의와 연구 ■ 상담·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내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적극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통한 법인 차원의 참여 증대 노력 	-



4.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의사소통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 ■ 직급별 워크숍,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 원활한 기관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리더십 관련 교육, 지원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 부장단 모임의 정례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면담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추진예정 : 정기업무점검,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 교회사회복지기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시, 시설의 의견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로서 정기회의 예정 (법인과 시설과의 의사소통 향상)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특별히 기관내 종사자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야기된 민원사항이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추진 : 정기업무점검,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 교회사회복지기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시, 시설의 의견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로서 정기회의 예정 ■ 협의회 차원의 중간관리자, 실무자 연수 지원 및 참여
교육 홍보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교육에 맞춰 알맞은 리더십 교육 참가
자원 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단체 모금 실무자 네트워크 조직화: 전문 모금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코멘트가 상호논의 되어야하고 이에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금아이템 개발과 연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단체 모금담당자네트워크 모임 -모금담당자들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사업공유 및 아이템개발, 새로운 모금전략 마련 -2012년 참여직원들의 평가에 따라 2013년에는 교육·홍보팀과 연계한 모금담당자 교육 신규개설
자원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봉사수요조사 통한 산하시설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요원 보수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관리 실무자와의 소통 구조 강화



5. 법인 특색이 반영된 공동사업 개발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사회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 내고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 100원 나누기 운동의 확대 실시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실시와 확대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공동사업화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시설운영 전반에서 차별행위를 점검, 예방,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예정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 설치 연구사업 추진 : 가톨릭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예정(장애인부모연합회 구성, 연구TFT 구성, 계획안 수립 등)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사업 추진 : 바보 의나눔 지원금을 확보, 직영노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카리타스 강점과 영성 기반한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가톨릭보육시설 운영규정 및 평가지표 개발 추진 : 협의회와 보육자문위원회 협력으로 가톨릭보육시설로서의 특화된 운영평가지표 개발 추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 직영보호작업장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연대성, 공동체성 향상 대상자인권향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분야 별 행사 및 시설운영 전반에서 차별행위를 점검, 예방,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예정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 설치 연구사업 추진 : 가톨릭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예정(장애인부모연합회 구성, 연구TFT 구성, 계획안 수립 등) CS노인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추진 : 바보나눔으로부터 2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동작·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측면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CS 강점 및 영성기반 노인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가톨릭보육자문위원회 운영 :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가톨릭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연구와 지원
교육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 :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실시 : 심포지엄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인권교육으로 실시(미션비전 교육과 함께 진행 예정)



<p>자원 개발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끼100원나누기 사업: 산하시설(단체) 및 본당사회사목적 자립적인 모금활동이 필요하며, 본 회에서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사회내에서 모금함을 식당이나 기타 업체에 배치하여 재원마련을 하도록 지원한다. ■ 연대모금 사업: 시설의 제세공과금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에 등록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으로 보험기부를 실시하며, 시설장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본회 정기후원 신청접수를 통해 법인에 기부를 하고, 모여진 모금액을 다시 법인에서 산하시설로 지원하여 연대성을 다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끼100원나누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재원마련 - 본 회 모금함지원을 통한 자체 업체개발로 지역 내 나눔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기관운영 재원 마련 - 참여본당 확대를 위하여 사회사목분과장 회의 등에 지속적 참여독려와 기존참여본당에 대한 현장방문 강화 ■ 연대모금 - 시설차량보험 만료 시 본 회 연계 보험회사로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시설상해보험, 종합배상보험 등 신규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확대 - 해피빈 공동이슈모금 등을 신규로 기획하여 협의회별(대상별) 온라인 공동모금 기회 마련
<p>자원봉사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주일학교 교사 대상 자원봉사 기본교육 신설 ■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교육 자료 연구 ■ 기본교육 시 한 끼 100원 나누기 저금통 배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운동 강화 및 실천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연구, 실시



안내 및 협조요청 사항

1. 사회복지팀

1) 담당제에 따른 역할변화와 신속한 의사소통

- 담당자들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 강화로 정책적이며 전문적인 역할 예정
- 담당자와 시설간의 의사소통과정은 팀장제와 비교할 때 소통 및 결정 과정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 가능
- 담당자와의 긴밀한 정보공유, 진솔한 의사소통 요청

2) 지역 본당과의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 본당의 이웃사랑 실천역할을 위하여 본당사회사목 공모지원사업 시행 중이며 가톨릭기관과의 협력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 본당의 전문성 보완 및 교회의 영성에 근거한 연대와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시설의 역할 요청

3) 분야별협의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 분야별협의회의 전문적·자율적 역할 강화됨에 따라 정책논의 및 교회가르침 구현을 위한 역할필요
- 협의회 역할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영수탁시설의 적극적, 공동체적 역할 요청

4) 직영·수탁 및 등록시설의 생산품 사용(하단 자료 참조)

- 250여 시설 중 많은 시설에서 다양한 제품 생산 중이며 특히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으로 제품 판매 예정
- 교회사회복지기관의 공동체성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5) 공동체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향하는 업무협력에 대한 이해

- 법인의 정기업무점검, 사례관리모델개발, 교회사회복지시설 운영지표 개발 등의 업무에 시설 전문인력 참여 범위확대(부장 및 과장급) 예정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분야별·유형별 업무점검지표 개발에 따른 시설장 참여 요청

6) 기 타

-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의 준수
-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의견 및 제안 요청



■ 직영·수탁 및 등록시설의 생산품 목록

단체명	상품종류	가격 (원)	비고	문의
강서직업 재활센터	롯데카놀라유 500ml X 2P 선물세트	7,000	센터 장애인근로인들이 직접세트포장한 제품 최소 주문수량은 박스(5세트35,000원)단위 택배비 본 센터 부담	고용채 02. 3661-0362
	선물용 양말세트 (2족)	5,000	센터 장애인근로인들이 만든(기계공정제외)포장제품 착용감이 편안한 고품질 남녀양말 고유상표“드노핌” (사람들을 하느님께 드높인다는 의미)	조수영 02. 3661-0450
	RGB네온보드	100,000	센터 장애인근로인들이 직접 제작 (크기:450X600) R(빨강색),G(녹색),B(파랑색) 빛의 3원색을 이용하는8가지 형태 이미지 연출 시선집중에 효과적인 광고상품/이젤(삼각거치 대)포함	장영일 02. 3661-0450
송파지역 자활센터	전통매듭 목주, 핸드폰고리등	3,000 부터	수공예매듭공예제품 (송파구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근로사업 운영)	김경숙 010. 4281-0429
	친환경 비누	3,000 부터	친환경EM발효액을 이용한 비누제품 (송파구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근로사업 운영)	황혜경 010. 5107-7650
바오로 교실 보호 작업장	누룽지 과자	1,000	시설 근로장애인분들이 만든 누룽지과자 (쌀과 곡물외에 첨가료가 없는 누룽지 가공식 품)	김원배 02. 306-5180
	성인용 기저귀	36,000 44,000	1박스(100개) 기준	
막달레나 의집	cp비누	6,000	자연상태의 투박한 느낌과 원재료의 건강한 기 능을 살려 만들.	정관영 02. 6401-8381
	아로마비누	4,000	인공화학물질 최소화/몸에 좋은 재료로 숙성 및 포장	
	립밤	2,000원	맞춤형주문가능 / 대량주문은 2개월전 사전예약 판매수익금은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에 쓰임	



단체명	상품종류	가격 (원)	비고	문의
한우리 정보문화 센터	4구 생초콜릿 셋트	7,000	미셀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망고의 3가지종류 로 제작가능 프랑스산 푸레를 사용하여 가니슈를제작 100%수작업생산(대량생산불가)	김대현 02. 2055-0909
	4구 미셀 셋트	7,000		
한국 가톨릭 레드리본	연꽃씨 목주	5,000	HIV/ADIS 감염인 재활사업 대량주문가능 / 문구를 새김 가능	최은경 010. 4435-5889
	김수환추기경 님열쇠고리	3,000		
	핸드폰고리	5,000		
사랑손 보호 작업장	면장갑, 반코팅장갑 등	켈레당 330	장애인생산물 / 자체생산 작업, 등산 등 손 보호, 작업 시 안전하게 사용 가능	조충현 010. 7310-7324
기쁜우리 복지관	팥빵, 소보루빵, 생크림빵 등	600	오베프베이커리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직업기술을지원을 통해 경 제적 독립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착한 예비사 회적기업 각종행사용케익, 선물용쿠키, 단체용간식, 군납품 쌀케익 및 빵류 등 주문가능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 및 생산에 대한 인증을 통해 장애인 생산물 인증시설 / 소량 어디든 배달 가능	정영수 010. 7314-1784
	롤케익/파운 드케익	8,000		
	쿠키선물세트	15,000~ 25,000		
햇빛자리	천연비누	개당 3,000	지적장애인제작 / 엄선된 천연재료로 제작 세트 주문가능(2개, 4개) 인체에 해가 없는 흙과 유약으로 빛은 생활 도 자기 (화분, 접시, 컵등)	정은희 016. 767-0793
	생활도자기	3,000 부터		
나자로의 집	천연비누	개당 4,500	시설장애인제작 / 화학첨가물 무첨가 지친피부에 영양공급과 피부보습 및 탄력에 도움 (어린이 피부에도 좋음) 카렌둘라, 장미, 녹차, 상황버섯 4가지 종류	박상호 010. 3235-6130



단체명	상품종류	가격 (원)	비고	문의
상계 종합사회 복지관	EM발효액	600~ 1,000	복지관내 자활참여자들이 제작하여 판매	김영미 02. 951-9930
	EM세안비누	1,500		
	EM세탁비누	1,000		
은평의 마을	팔빵, 소부루, 크림빵, 카스테라, 모닝빵, 모카번	600	은평의마을 생활인 중 원내 직업재활에 참여하 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 해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 제빵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생활인들의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 섭취기회를 제공	문금자 02. 3156-6372 김봉수 02. 3156-6375
	엔젤	3,000		
	버터롤	3,000		
	롤케이크	7,000		
	파운드케이크	8,000		
그라나다 보호작업 센터	원두커피	10,000~ 15,000	보호작업센터 장애인들이 커피 roasting, 포장, 배달 원두커피 1팩 200g기준 드립팩 1개~1세트(4개) 온라인주문기능 (직접 배달 및 택배가능)	유점화 02. 3661-3402
	드립팩	7,000~ 32,000		
'화목' 공동 브랜드 사업	장갑	사랑손	본 회 직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들이 공동 브랜드 런칭을 통해 각 시설별 물품을 공동브랜드로 판매	조충현 010. 7310-7324
	오곡스낵	비둘기		
	마스크	강서직업		
	타올	성지		



2. 교육·홍보팀

1) 홈페이지 개편

- 접근성, 편리성 강화, 본회의 정체성 공유 강화,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 확보를 방향으로 한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실시

2) 교육사업 기획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협조

- 실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기획, 본회 핵심 인력의 성장과 발전 도모, 시설과 법인의 연대를 통한 성장과 발전,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획지원단 조직
-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보강을 계획하고 있음.

3. 자원개발팀

1) 시설지원 현황(2012. 1. 1~10. 31)

구분	현 금	현 물	기능보강	계
현 황	- 지 원: 18개 시설 - 금 액: 86,626천원	- 지 원: 73개 시설 - 환산액: 495,057천원	- 지 원: 6개 시설 - 금 액: 20,020천원	- 지 원: 84개 시설 - 금 액: 601,703천원

2) 연대사업 현황(2012. 1. 1~10. 31)

사업명	한끼 100원 나누기	차량보험	계
현 황	- 참 여: 5개 시설 - 모금액: 5,309천원	- 참 여: 13개 시설 23건 계약 - 모금액: 1,830천원	- 참 여: 18개 시설 - 모금액: 7,139천원

3) 모금담당자 네트워크 참여 현황(2012. 1. 1~10. 31)

회 차	1차	2차
현 황	- 일 시: 2012. 5. 29(화) 19:30 - 참 여: 14개 시설 16명	- 일 시: 2012. 9. 14(금) 15:00 - 참 여: 10개 시설 11명

4) 후원물품 배분

-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전산시스템 공지사항 수시 참조

5) 모금담당자네트워크 모임 시 적극적인 기관 지원

- 직원참여 독려

- 3차모임: 2012. 12. 7(금) 15:00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2012년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발표

Rev.오대일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2년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분석 결과 및 과제

| 오대일 신부_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

목 차

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배경과 목적
2. 고충민원처리의 기본원칙
3. 고충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
 - 1) 일반적 현황
 - 2) 유형별 분석현황
4. 고충민원처리 사례분석
 - 1) 시설운영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 2) 구성원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분석
5. 결과 및 과제

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배경과 목적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본회)는 교구 사회복지회로서 245개의 단체(사회복지시설과 단체 포함)가 등록되어 있다. 그 중, 본 회가 운영주체로서 행정적·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직영·수탁시설은 103개로서 전체 등록단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본회는 직영·수탁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회나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단체들에 대해서도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최근에 시설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설들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상황으로 인해 교회의 복음정신이 손상되거나 본연의 소명인 사랑과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등록단체들로 하여금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본 회와 등록단체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 심의 및 결과 통보
- ②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관련 규정에 의해 요청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교구 직권자의 감독권), 제4장 13조에서 16조까지 근거
- ③ 고충민원의 사례유형화, 사례발표 및 사례집 발간
- ④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와 재발방지 교육
- 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협력
- ⑥ 위원회 운영개선 및 지침 개정
- ⑦ 기타 회장과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2. 고충민원처리의 기본원칙

고충처리위원회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민원 건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6가지 기본원칙을 수립,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수정·보완 중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모든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고충민원 처리 시 인간존중과 정의의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
- ③ 등록단체의 고충민원을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내 신뢰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소규모 등록단체에 대한 고충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⑤ 고충민원이 접수된 등록단체에 대해 필요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모든 고충민원의 신상 정보 및 세부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고충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

1) 일반적 현황

2010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진행 중인 고충민원 건에 대한 일반적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고충민원 건의 일반적 현황

구분 시기	접수 건수	분 야							직영/등록		
		아동	장애 인	청 소 년	여성	노인	종합·지역	기타	직영 수탁	등록	분회 (교구)
2010년	6	2	3	·	·	·	1	·	5	1	·
2011년	13	2	4	1	3	·	2	1	9	3	1
2012년 10월	4	1	·	·	·	1	1	1	2	2	·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2010년~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23건이며 2011년도에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충민원 발생시설의 해당분야는 아동·장애인이 52%(전체 23건 중 12건), 직영수탁시설의 고충민원이 70%(전체 23건 중 16건)로 대부분 직영·수탁시설의 고충민원이 접수·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장애인 분야가 52%로 과반수에 이르는 결과는 전체 등록 단체에서 차지하는 아동·장애인 분야가 47%(전체 243개 단체 중, 114개)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현황 자료는 고충민원 건의 접수 현황이므로 발생 시설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동일 시설에서 2회 이상 고충민원 건이 접수 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설 수는 19 개이다.

2011년도에 본회(교구)에 대한 고충민원 건은 장애인의날 행사 시, 행사 장소가 장애인편 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발생되었다는 외부 기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을 의미한다.

2) 유형별 분석현황

가.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따른 분석

고충민원 건에 대한 명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원요인, 신청인, 처리결과 등에 대한 유형별 통계 결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고충민원 발생의 원인에 대한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따른 분석현황

구분 시기	접수 건수	시설운영문제				내부갈등	이용자상해, 인권	본회에 시정요구
		회계 비리	노무 문제	시설 운영	본회 협약 관련			
2010년	6	1	·	2	1	·	1	1
2011년	13	1	2	2	1	5	1	1
2012년 10월	4	·	·	·	·	2	2	·

※ 시설운영문제 중 시설운영 부분은 회계와 노무문제를 제외한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의미함.

※ 내부갈등에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보다는 의사결정의 합의과정 부족, 감정적인 갈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이 포함됨.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따른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회계 및 노무문제 등 시설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시설 내부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비리로 분류한 2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관청의 지침 불이행, 간이영수증 남발, 수당의 부당지급(무원칙, 지침에 대한 오해로 과다 지급 등),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일부 횡령, 미시행 프로그램의 강사비 지급으로 일부 횡령 등이 포함된다. 노무문제에는 시설장과의 갈등에서 시작되어 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 신고, 휴게시간 미활용 부분에 대한 수당 요구 후, 그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 신고 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인 시설운영 부분에는 시설내 시설장가족 거주, 사유재산 취득과정에 대한 불명확성, 가족의 시설운영, 단위사업 종결에 대한 원칙부재, 교육교재비 추가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회협약 관련 부분은 재산 및 운영협약 불이행에 대한 합의내용이다.

내부갈등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등요인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신고 또는 소송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상해·인권 부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의 장애인차별을 문제시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과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매우 주의가 요망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최고책임자인 회장 신부님의 개인메일로 민원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인 의사소통 절차와 심의 과정을 거쳐 조정하기 위해 고충민원 건으로 처리하였다.

나. 고충민원 신청인에 따른 분석

다음으로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따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원신청인은 민원발생의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므로 시설의 민원발생 예방과 해결방안 모색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고충민원 신청인에 따른 분석현황

구분 시기	접수 건수	주무 관청	직원	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가족	외부강사	외부기자	타시설(장)	본회
2010년	6	1	·	1	2	·	·	1	1
2011년	13	·	6	1	2	1	1	1	1
2012년 10월	4	·	1	·	2	·	·	·	1

※ 본회가 신청인인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 공정하게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회장과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됨.

고충민원의 발생원인이 다양한 만큼 고충민원 신청인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분석현황을 통해 직원에 의한 신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이용자와 가족들이다. 이는 발생원인이 시설 운영과 내부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시설운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봉사자, 후원자, 내외부 인력에 의해서도 민원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점은 그 함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무관청에 의해 민원신청이 이루어진 점 또한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더욱 원칙적이며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한다. 더불어, 그동안 본회에서도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채 결정되어 온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 및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 후 본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설운영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본회의 판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현황

구분 시기	접수 건수	시정·합의 권고	조정·명령	시설장 변경		종사자 징계건의	진행중
				자발적 사직	징계건의		
2010년	6	2	2	1	·	1	·
2011년	13	4	5	2	2	·	·
2012년 10월	4	2	1	·	·	·	1

- ※ 시정권고는 민원 건에 대한 명령이나 징계가 부당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함.
- ※ 합의권고는 공정한 해결을 위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에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함.
- ※ 조정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때 직권에 의하여 조정함.
- ※ 명령은 부당한 사유나 불합리한 처우가 인정될 때 피신청인에게 개선을 명령함.
- ※ 고충처리위원회는 역할 상 징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사와 심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는 분석자료의 시설장 변경의 징계건의는 인사권자인 회장의 보직이동 명령이나 인사위원회에 건의된 사례만이 해당됨.
- ※ 종사자징계건의는 해당시설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진행하도록 건의함.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시정·합의권고와 조정·명령이 각각 8건으로 동일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처리결과에 해당하는 시설장과 종사자 징계도 6건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장 변경에 해당하는 민원 건은 주로 시설 운영문제에 해당되며 회계비리 2건, 전반적인 사업운영 3건으로 나타났다. 권고에 해당되는 처리결과는 주로 등록단체들에게 통보되었고 직영수탁시설의 경우, 대부분 조정, 명령 이상의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에 대한 시설장의 역량과 책무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충민원처리 사례분석

1) 시설운영문제로 인한 사례분석

가. 고충민원 사례 개요

구분 시기	분 야	직영·수탁 등록	민원원인	민원신청인	처리결과
2011년	여 성	직영	시설운영문제 (주요:회계)	강사	시설장 변경 : 자발적 사직

나. 민원의 주요 원인 및 과정

① 2011. 6. 18 고충민원 신청, 접수

시설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했던 강사로부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건으로 민원이 접수됨.

② 민원의 주요 내용

- 피신청인(시설장)은 시설의 대상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비로 2010년도 기금을 지원 받았으나 집단인원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사전 양해 또는 합의 없이 집단상담 강사비(일금 사백만원정/₩4,000,000)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세금신고까지 진행한 사항을 제3자(신청인의 직장관련 세무사)로부터 통보받았음.
-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임의사용, 신청인의 추가 세금징수 및 신청인의 직장에서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
- 신청인이 위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집단의 필수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기간 내에 실시하지 못했으나 추후 인원이 충원되면 반드시 해야 할 프로그램이므로 반환하기 보다 예치해 두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함.
- 그러나 신청인은 본 민원사항은 투명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시설장으로 임명,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본 민원신청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함.



다. 조사과정과 결과

- ① 2011. 6. 30 시설업무 점검 실시(세무사, 담당관)
 - 민원내용인 집단상담 강사비 임의집행 건은 총 4건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각 집단상담 강사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 상담일지 허위작성, 강사와의 사전양해 또는 협의 부재, 증빙자료 누락 등의 문제를 발견함.
 - 기금보고 자료의 세금신고액 및 자료와 실제 세금신고액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비가 감소됨(실제 세금신고는 3.3%였으나 보고 자료에 4.4%로 되어 있어 강사비는 4.4%를 제외한 금액으로 축소되어 지급됨). 그러나 이는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은 공적기금처리 상의 명백한 과오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됨. 이에 대한 본회의 입장 정리 필요
- ② 2011. 7. 11 시설장 면담, 사직 의사 표명
- ③ 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의 진행
 - 1차 심의 : 2011. 7. 4 (업무점검 결과 보고 및 심의)
 - 2차 심의 : 2011. 7. 20 (시설장 면담보고 및 심의- 시설장의 의사에 따라 사직처리 건의)

라. 처리결과 및 추후 진행사항

- ① 시설장의 사직의사 표명에 의해 인계인수 업무 진행 지시
- ② 2011. 9. 30일자로 퇴직 처리
 - 후임 시설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본회 담당관이 파견근무로 시설장 대행 업무 진행 (2011. 10. 4~11. 5 총 5주간)
 - 그 과정 중에 수당의 과지급,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건이 발견되어 시설장으로부터 일금 일천팔백구십사만구천구십원정(₩18,949,090)반납 처리 진행함.
- ③ 2011. 11. 1일자 신규 시설장 임명, 업무인계



2)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례분석

가. 고충민원 사례 개요

구분 시기	분 야	직영·수탁 등록	민원원인	민원신청인	처리결과
2011년	청소년	등록	내부갈등 (감정손상과 이해관계 대립)	후원자	시정 권고

나. 민원의 주요 원인 및 과정

① 2011. 3. 29 고충민원신청, 접수

② 민원의 주요 내용

- 신청인이 미국에서 모금한 후원금(2007년부터 보내온 미화 약 \$6,530)을 시설장이 시설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지난해 연말에 3개월간 3명의 아이들에게 미국 연수 기회를 갖게 해 준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됨.
- 신청인은 아이들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등이 좋지 않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시설장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서도 시설장의 사제, 수도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 재산조성에 대한 의구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신청인에게 감사하다는 전화 연락도 없었던 것에 대해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해당 구청에도 수차례 민원요청을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시설비리 건으로 이야기하였음을 알려줌. 신청인은 시설장 해임 및 등록취소 요청함.

다. 조사과정과 결과

- ① 4월 중에 시설장과 1회 면담. 민원인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게 아이들이 미국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다고 주장함.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가며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고 차고에 가둔 후 외출하고 돌아옴. 이 사실은 아이들이 차고에서 갇혀 쓴 반성문을 확인함. 또한 사석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었음. 그러나 미화로 받은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환은행의 개인 명의 통장에 미화 그대로 두었으며 이는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에 가게 될 때 쓰기 위함이었으나 잘못 처리하였음을 인정함.

- ② 신청인은 평균 주1회씩 전화하여 반복되는 내용을 매우 격분하여 이야기함. 시설장을 해임시켜야 하며 그 후 시설 운영은 신청인이 시설을 매입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함.
- ③ 2011. 5. 3 시설 지도신부와 업무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것을 협의하였고 진행 계획임을 알림. 시설장은 본인이 사직의 뜻이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준비하겠다고 함.
- ④ 2011. 6. 1 업무점검에 대한 공문발송함.
- ⑤ 2011. 6. 21 업무점검 (세무사, 담당관)
 - 전반적인 시설회계 처리는 비교적 잘 되어 있음. 사회복지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생활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확인사항 5건 : 통장분리건, 후원금에 이월금 포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예산대비 시설장비유지비, 환경개선준비금의 초과 집행 및 이사회 승인없이 집행.
 - 재산현황 : 시설장 개인명의 부동산 1채(부설시설로 운영), 해당시설(수도회 소유)
 - 미국에서 지냈던 아동과 잠시 면담 : 학교는 재미있었는데 집은 재미없었다는 말 이외에는 미국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함.
 - 부설 시설의 시설장과 면담 : 민원인의 주장이 대부분 감정적이며 본인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불충분했음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⑥ 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의 진행
 - 1차 심의 : 2011. 4. 15(시설장 면담 및 지도신부와 업무점검 협의 예정)
 - 2차 심의 : 2011. 7. 20(시설 재산권에 대한 수도회와 협약 권고, 신청인에게 시설장 해임 및 등록취소는 불가함을 결정)

라. 처리결과 및 추후 진행사항

- ①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보고 : 시설장 해임 및 등록취소 불가
피신청인인 시설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 업무점검 지적 사항 조치 및 시설 소유권자인 수도회와의 시설사용에 대한 협약 추진 후 보고



- ② 2011. 12. 8일자로 시설의 처리결과 이행 공문 접수
- ③ 이후 신청인의 추가적인 항의 또는 연락은 없었음.

5. 결과 및 과제

이상의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2010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23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에는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에는 2011년의 1/3일로 감소하였다. 아동·장애인 분야가 가장 많았고 직영수탁시설이 많았으며 발생원인은 시설운영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신청인도 시설과 관계된 다양한 인력들로 나타났으며 처리결과는 대부분 시정·합의권고와 조정·명령을 통해 해결함을 알 수 있었으나 가장 강력한 처리에 해당하는 시설장사직과 종사자 징계도 23건 중 6건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과거에는 교회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수도자, 활동가들에 의한 헌신적인 운영이 뒷받침해 주었으나 현재 교회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회정신에 맞는 특화사업과 시설운영에 주력하기 보다는 정해진 지침과 보조금에 맞는 사업을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한, 직원의 대다수가 비신자이다보니 교회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사업계획과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로인해, 타성에 젖은 사업과 시설운영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기관 역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외일 수 없으니 인간존엄성 실천과 시설운영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없고 비리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시설장은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웃사랑의 형태로 실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리더로서의 시설장의 책임과 올바른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피신청인이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설장임). 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역량은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성, 책무성을 바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사회복지기관이 사회속의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본회와 시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이것은 더더욱 시급함을 절감하며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교회정신에 따른 예방 및 발전방안 수립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모듬토의

모듬별진행

[20121109]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듬토의

1) 사목교서 및 지침을 사업 안에서 연결, 구현하는 방법

- 2013년도 사목교서의 주제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신앙의 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 교구의 사목교서와 지침을 각 시설의 운영과 사업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법인의 역할과 인재상

-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

법인의 역할	1.
	2.
	3.
	4.
	5.

-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 인재상은 무엇인가
인재상 : 2-3개 정도, 역할과 역량은 직급별

인재상	1.
	2.
	3.

	역할	역량
시설장	1. 2. 3.	1. 2. 3.
부장	1. 2. 3.	1. 2. 3.
중간관리자	1. 2. 3.	1. 2. 3.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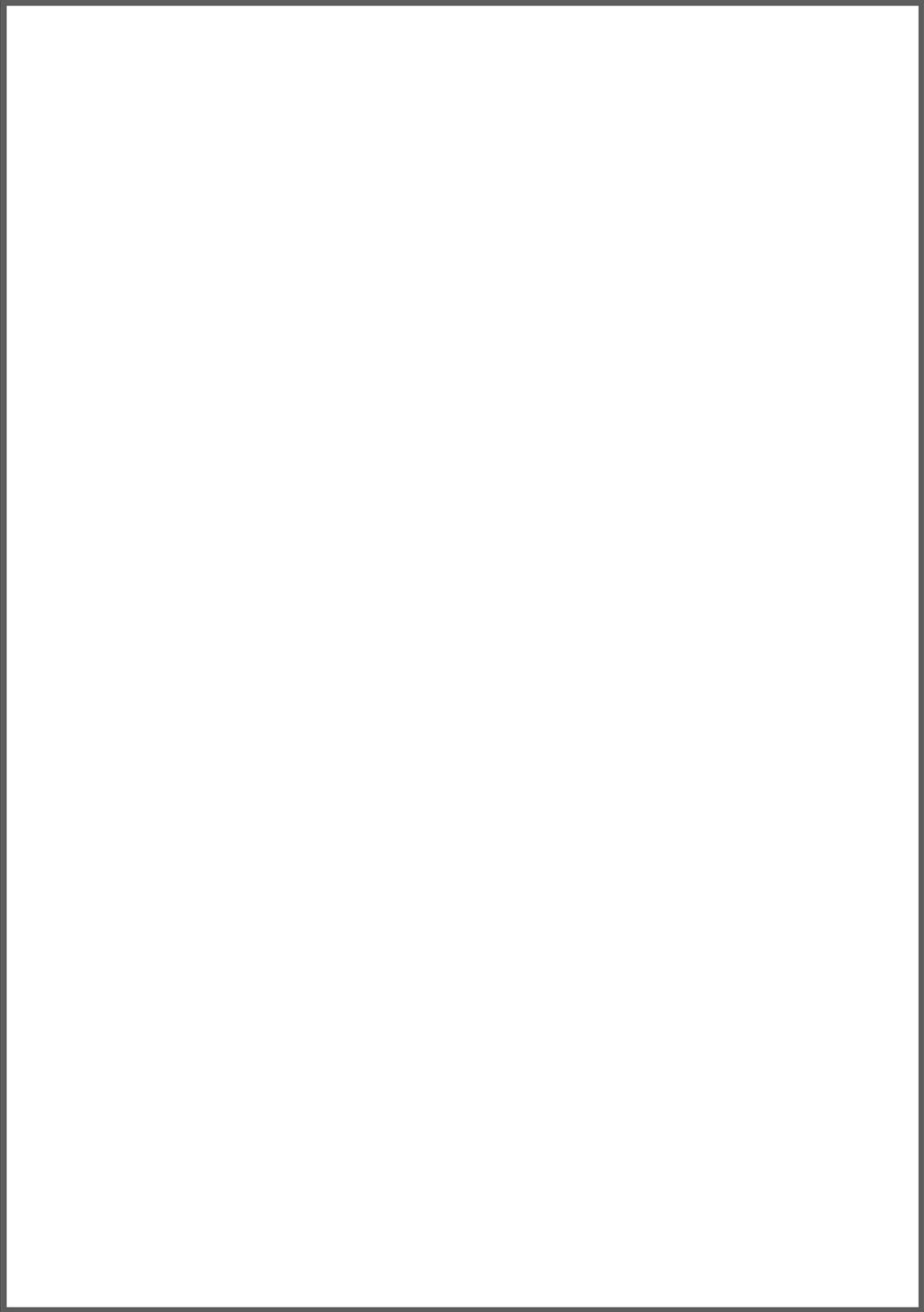
-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를 통한 쇄신 방향과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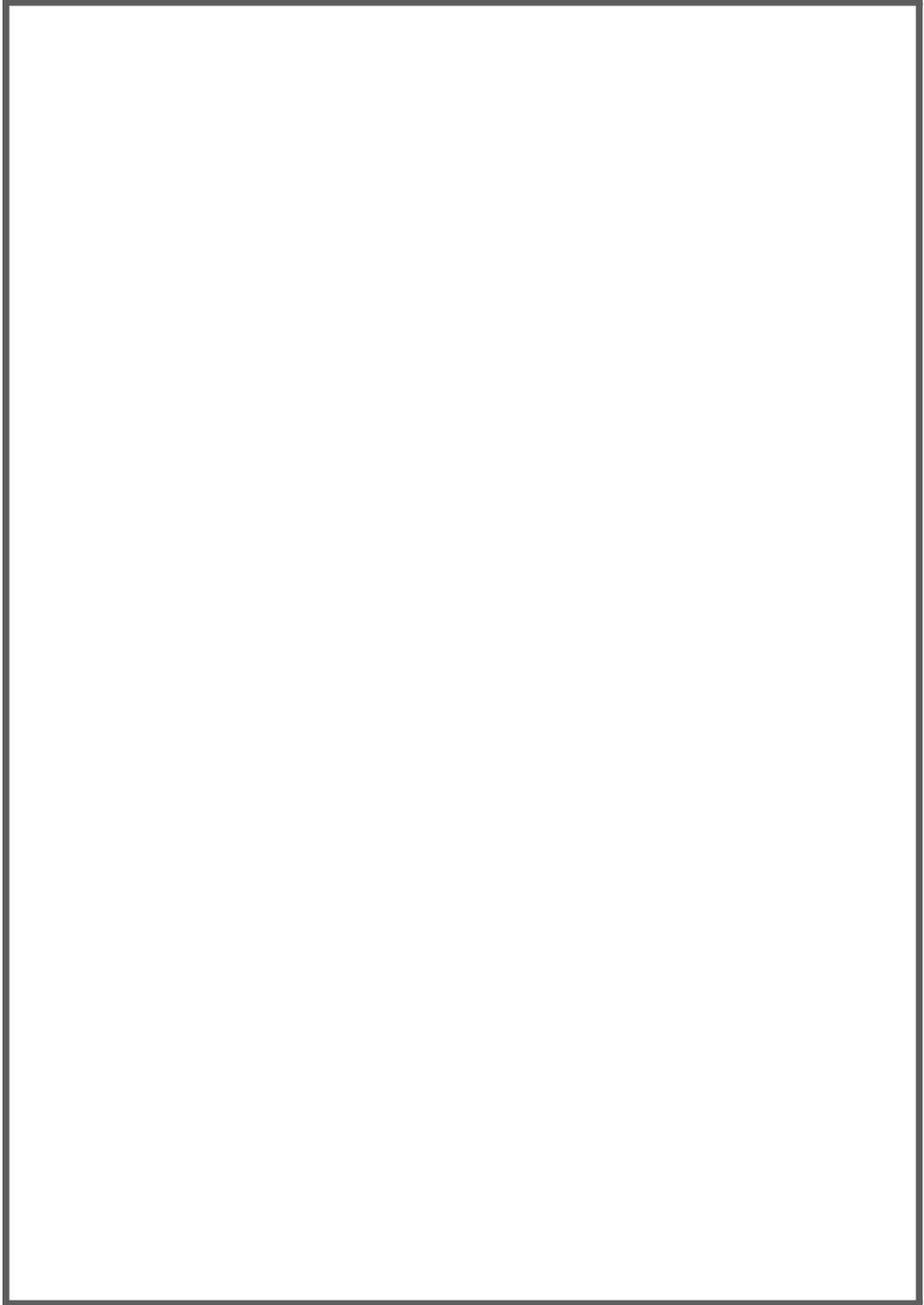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 (1) 현재 고충민원 발생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시설의 운영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시설은 고충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장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 하는가?
- (3) 교회사회복지기관의 윤리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시설과 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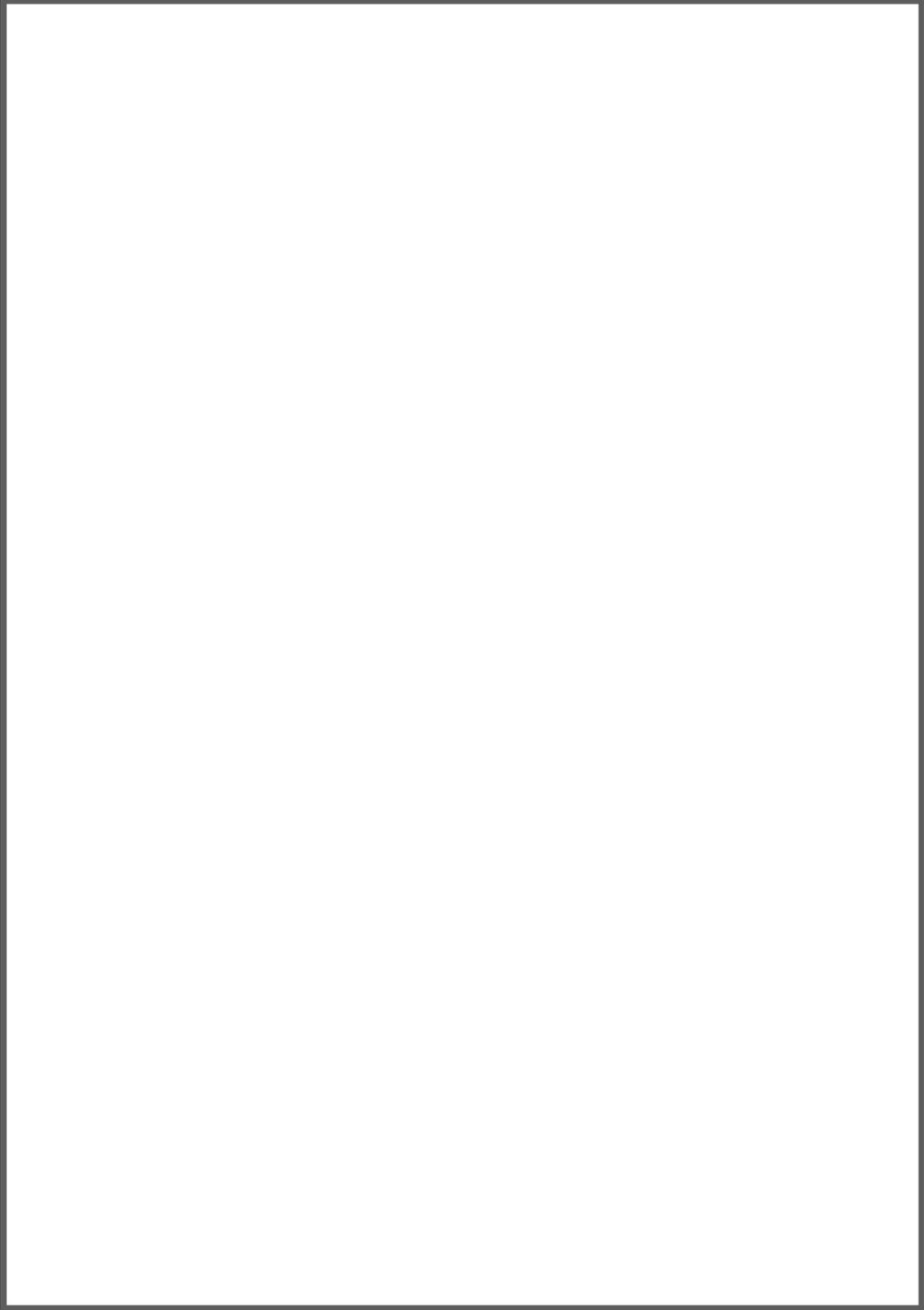
- 담당제 조직 변화 후 변화된 점과 앞으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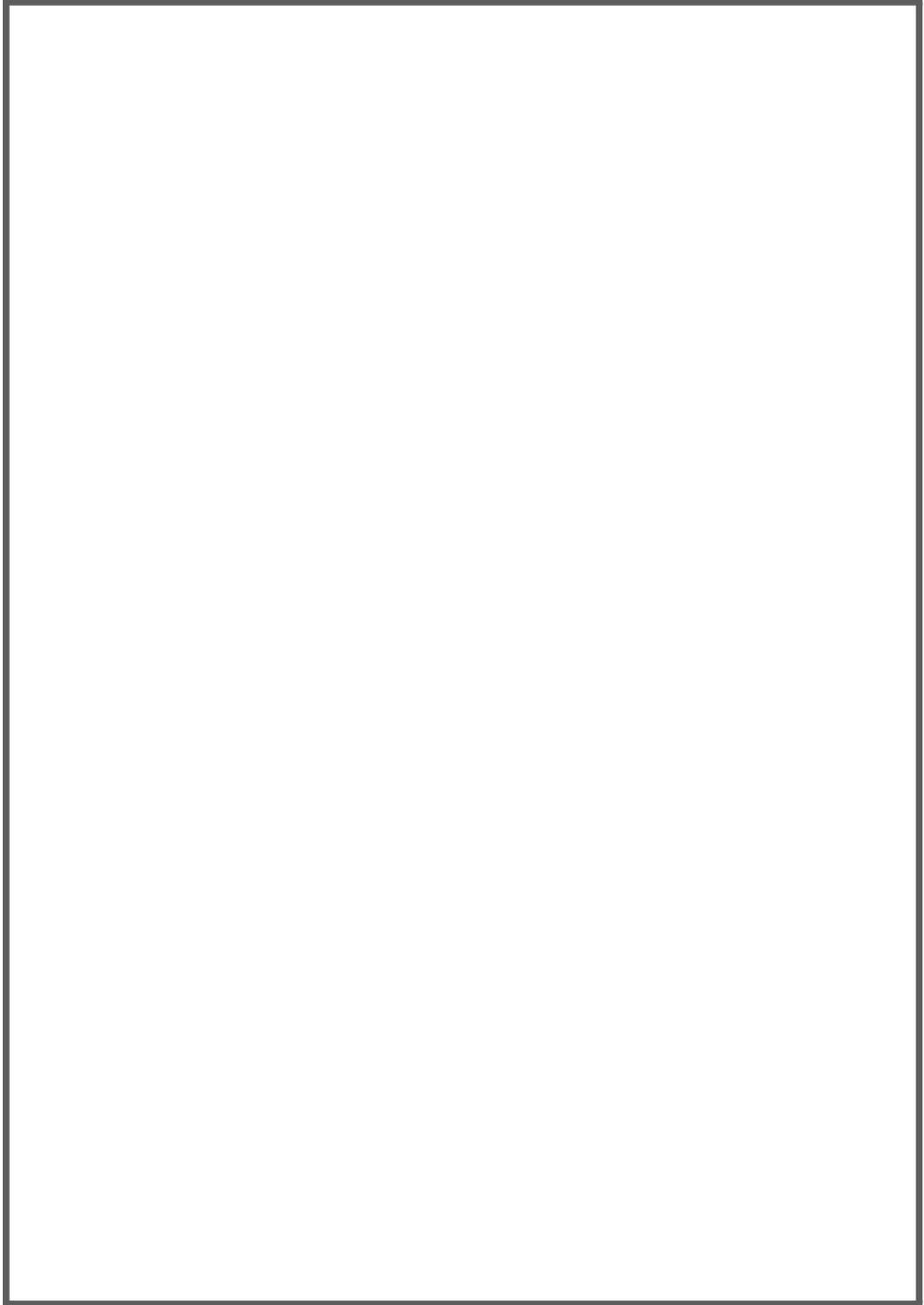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법인 사무국의 담당제 조직 변화 후 시설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된 점과 개선점
 지원의 원활성, 협조성, 전문성, 태도변화 등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모듬토의 발표

모듬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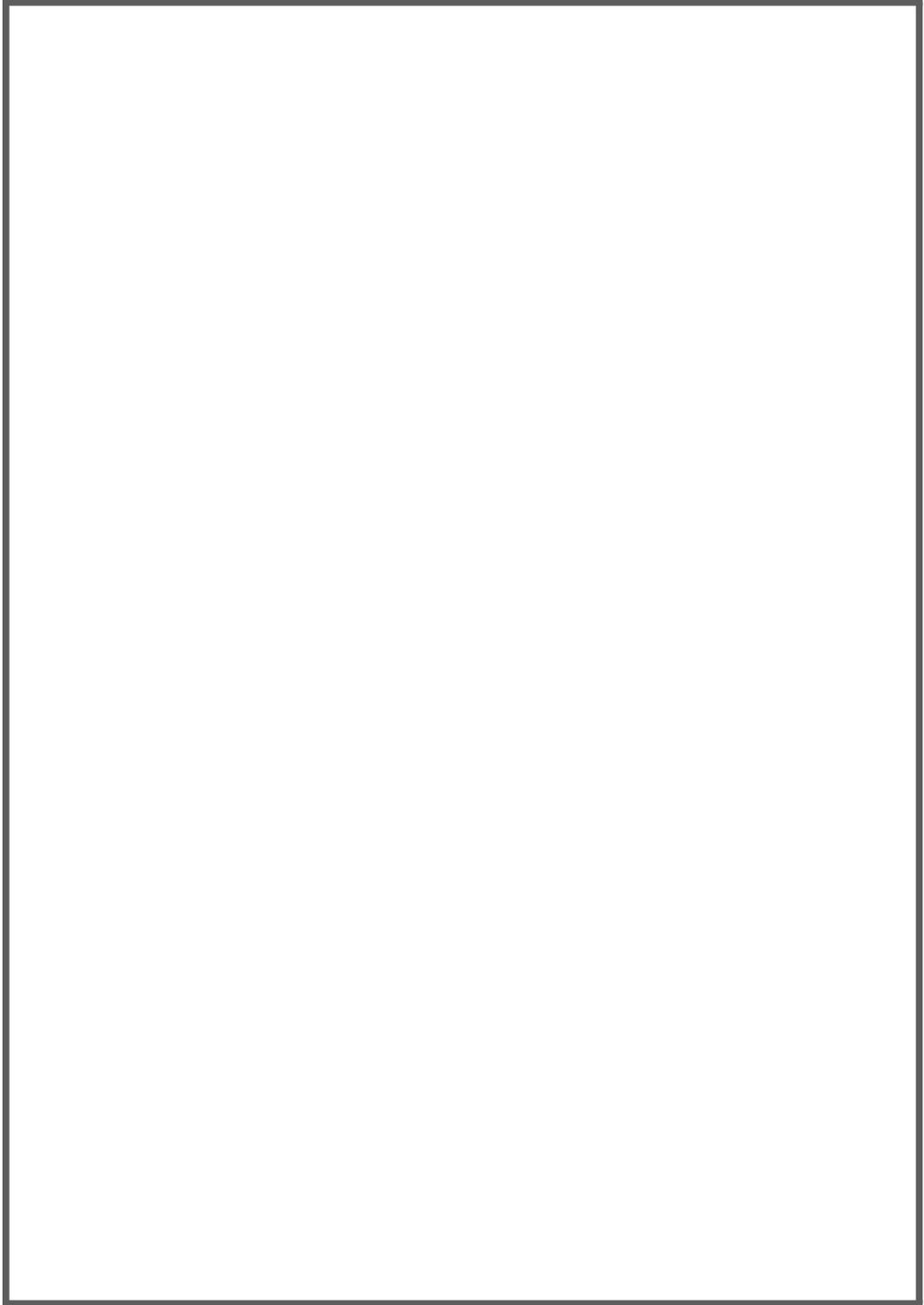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2012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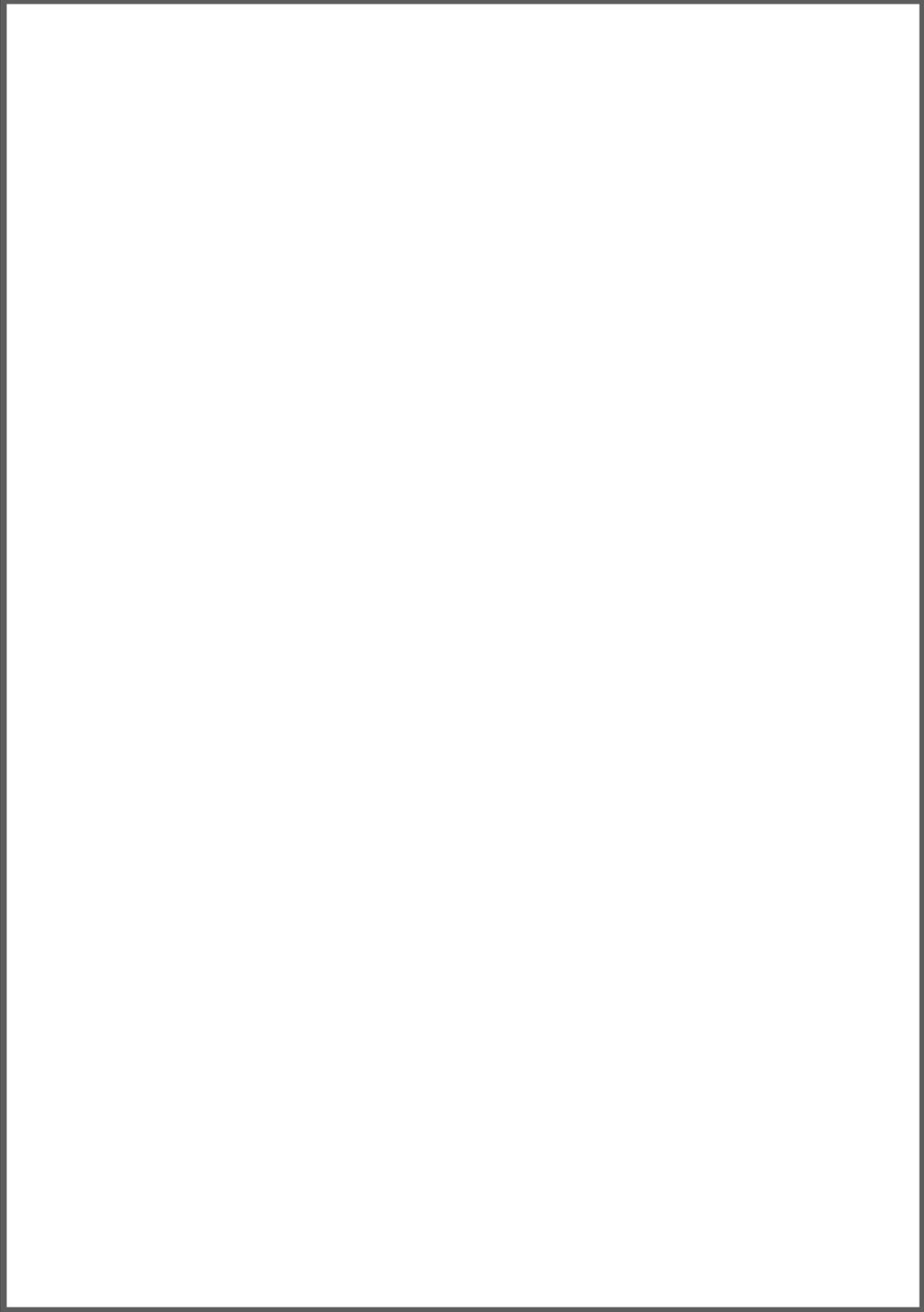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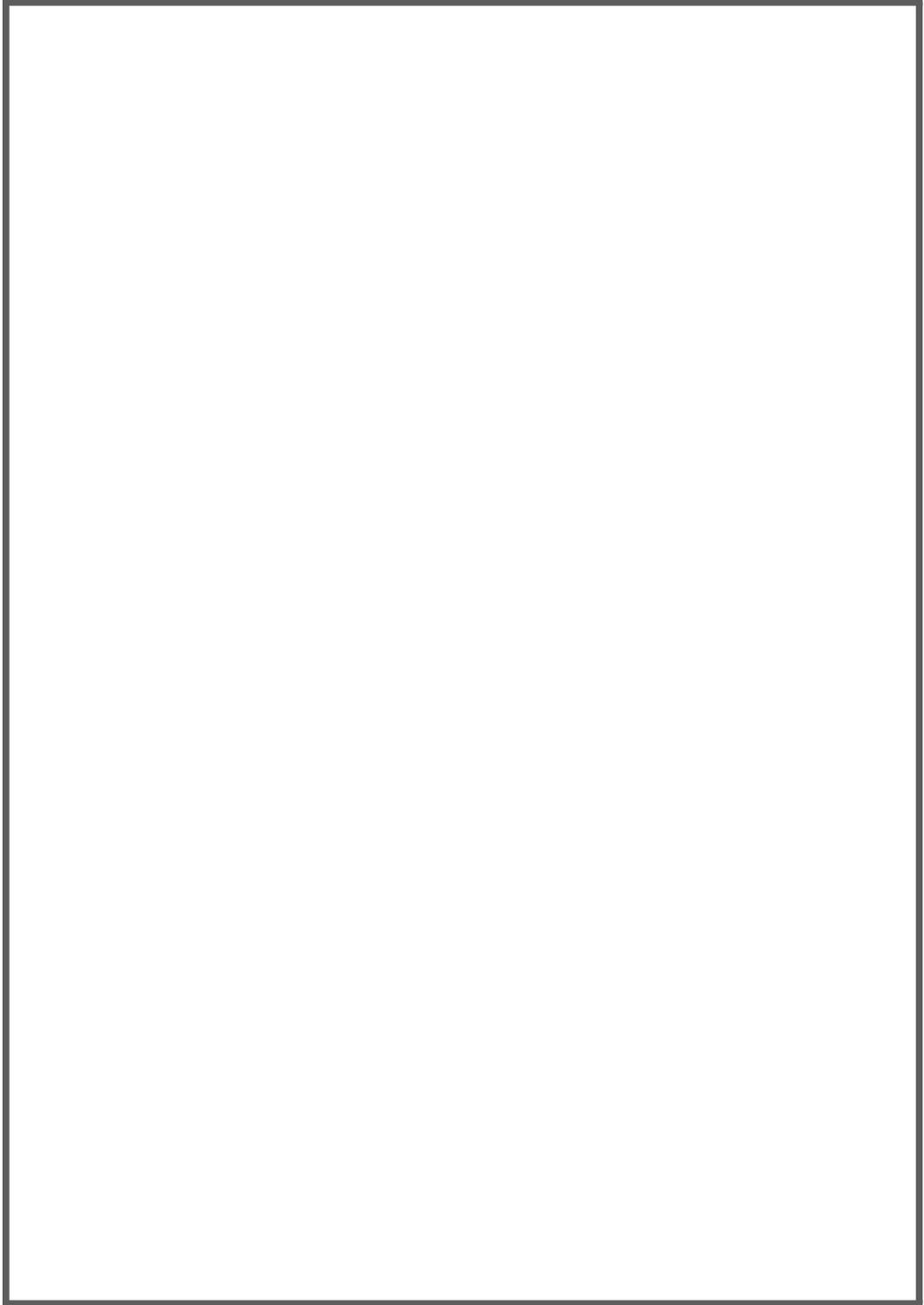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듬토의 발표

| 각 모듬별 |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초평 응

Rev.정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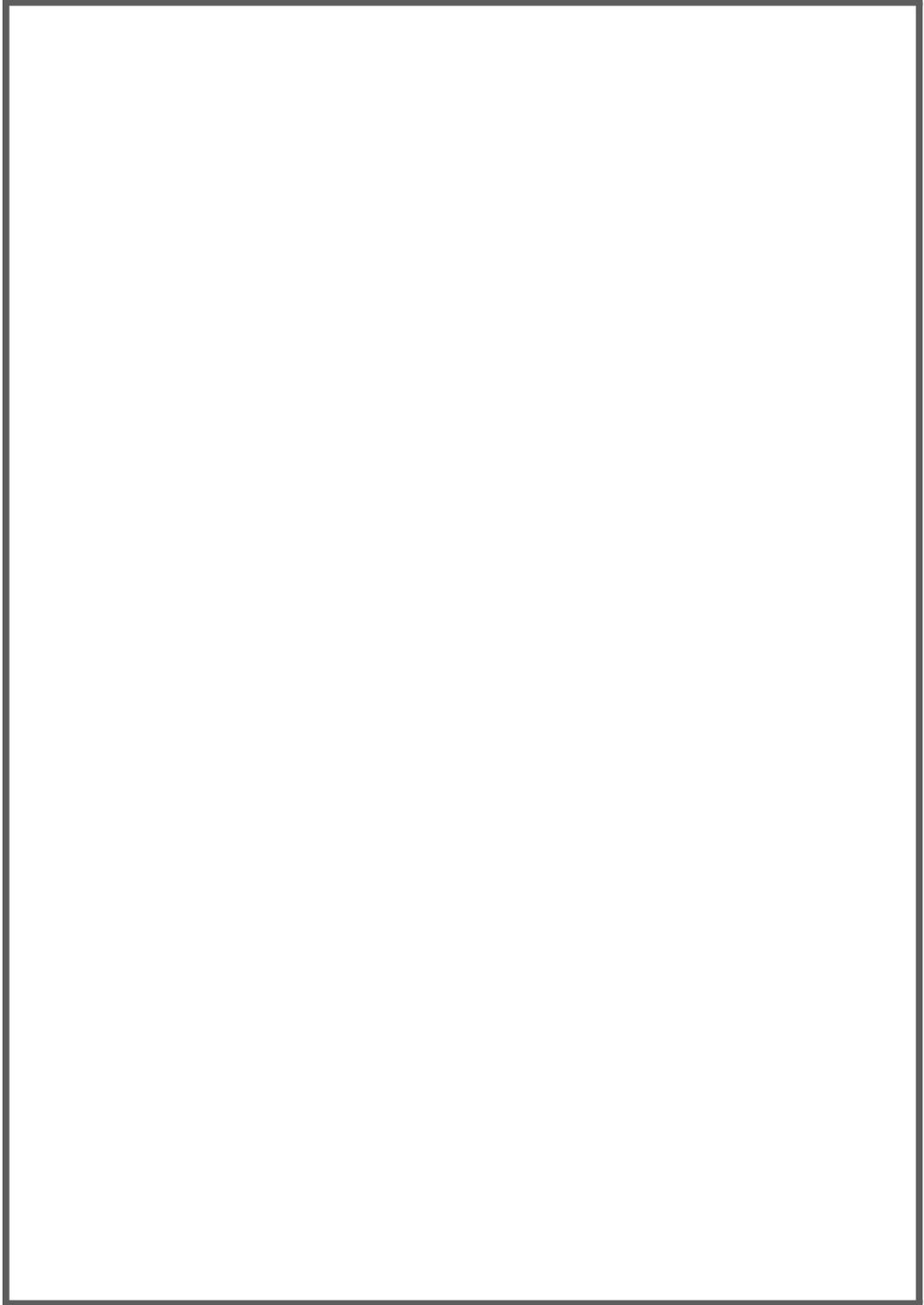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2012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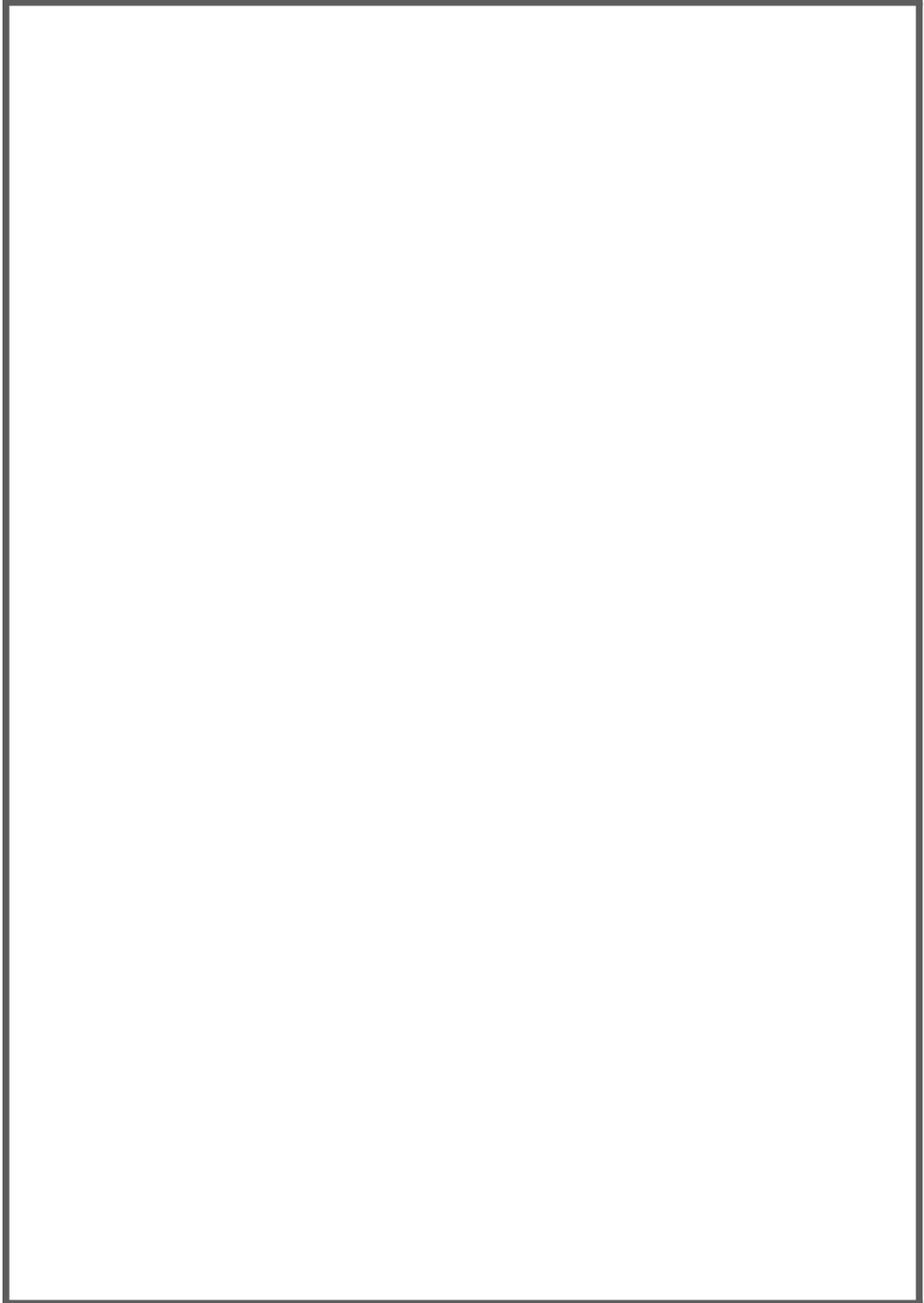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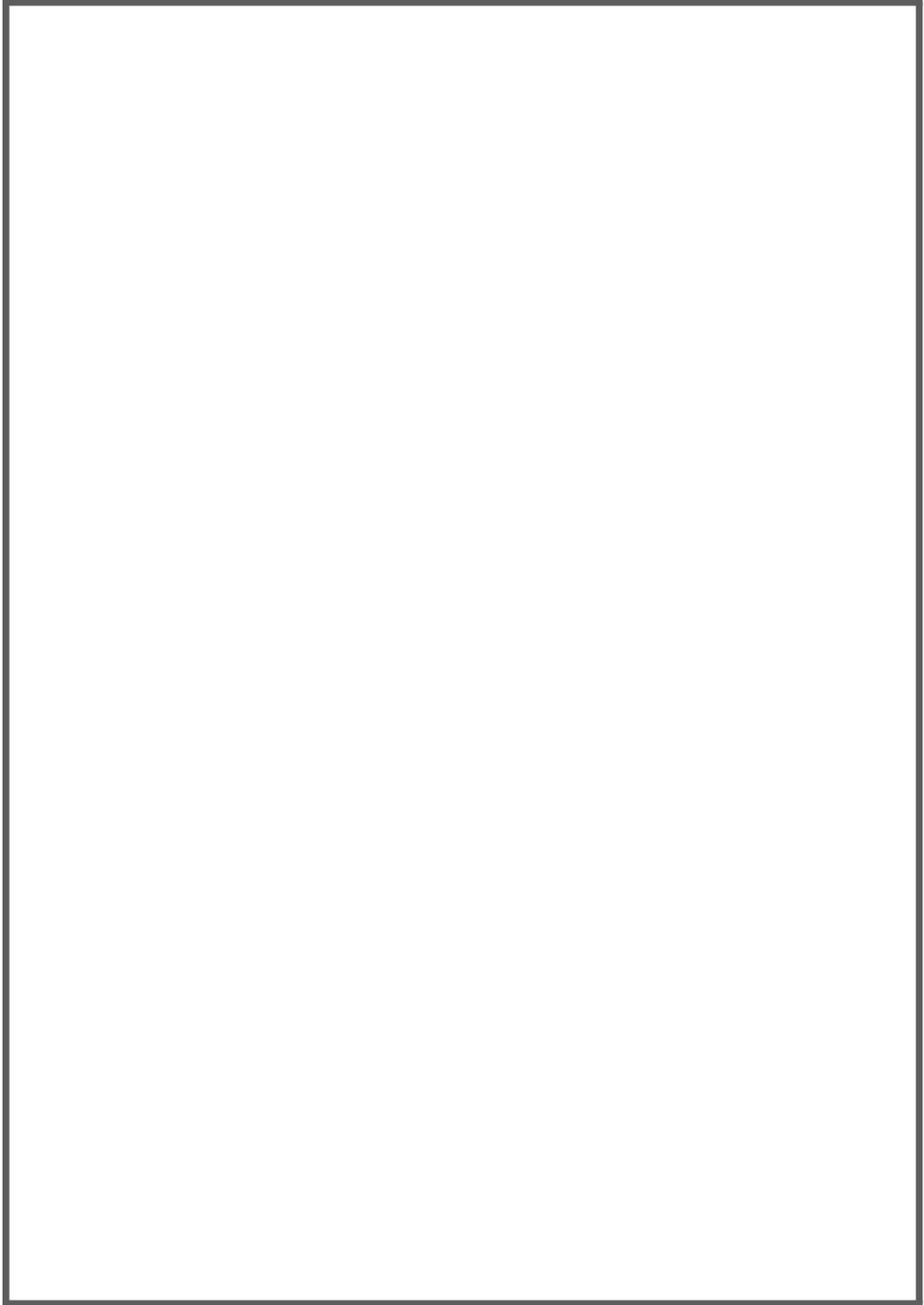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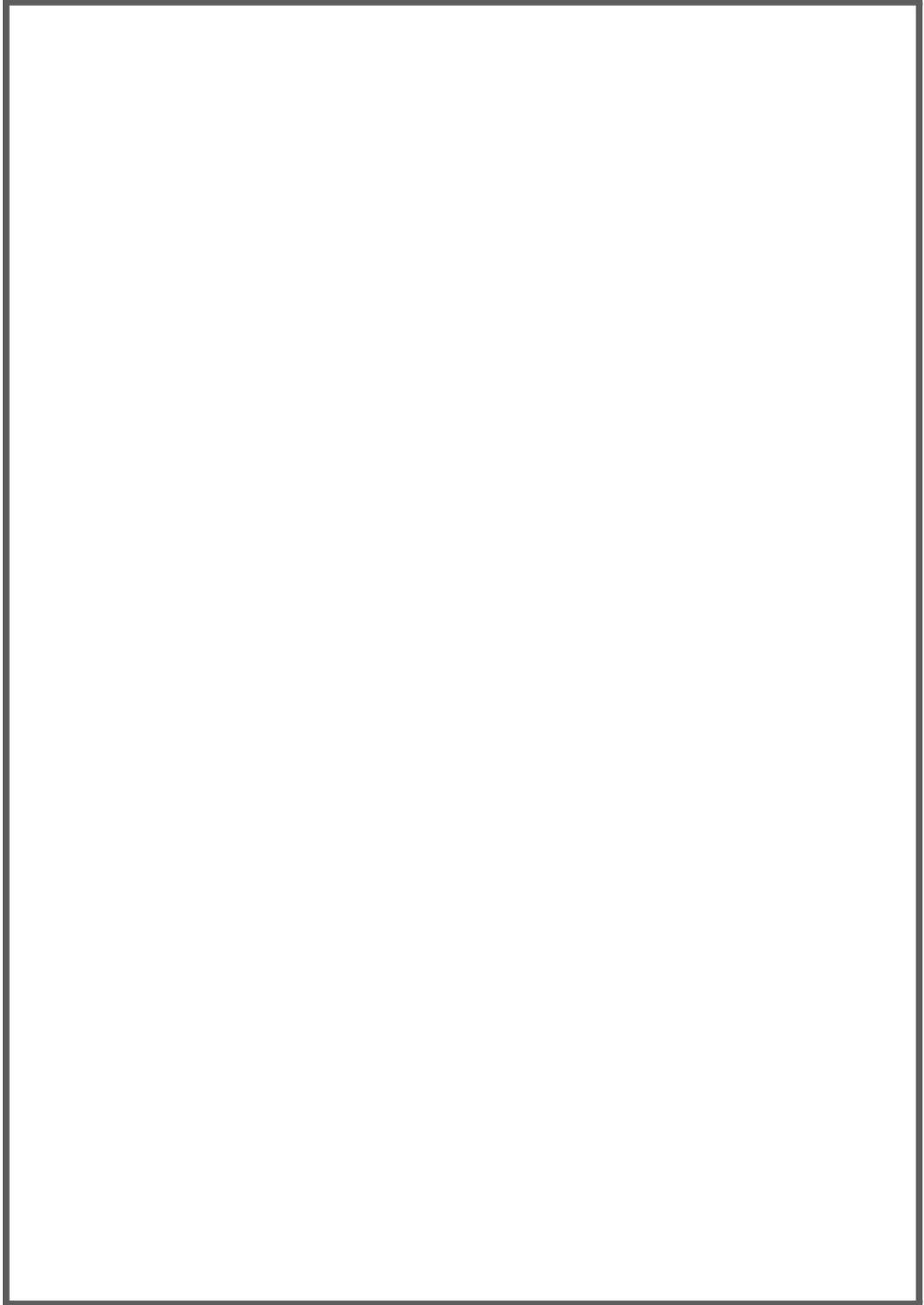
| 정성한 신부 |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파견미사

Rev.정성환 외 사제단

[20121110]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1 독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0-1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 번 보여 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줄곧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무렵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여러분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⓪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 1ㄴㄷ-2.5-6.8ㄱ과 9(◎ 1ㄴ)

⓪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울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⓪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복음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9-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뿔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 신앙의 해를 맞이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연수를 마치고 파견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Mozz

기쁜 마음으로

1. 나 의 생 명 으 를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감 사 하
 2. 나 의 삶 을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선 주 님
 3. 나 의 생 움 으 를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주 님
 4. 나 의 재 능 으 를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당 신
 5. 나 의 마 미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영 영

하 - 는 맘 으 로 찬 미 하 - 게 하 소 서
 일 - 는 하 도 록 나 를 인 - 도 하 소 서
 찬 - 미 하 도 록 깨 어 있 - 게 하 소 서
 영 - 광 위 하 여 봉 사 람 사 하 - 게 하 소 서
 토 - 록 당 신 을 사랑 하 - 게 하 소 서

영성체송 마태 16, 16. 18 참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체성가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느리지 않게

1.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보나 큰 사랑이 있으라 내 영혼이 침묵 중
 2. 주님은 당신 성혈로 언제나 우리를 씻으사 내 마음은 비추시

애정 성된 기도를 드리네 수고 하느자의 위로 머 굶
 어 영접 한 생명을 주시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영원

주린 이들 양식 내 근심을 주께 말 거 영원히 주안에 살리라
 한 삶의 길 열리니 내 생명을 주께 말 거 영원히 주안에 살리라

236 사랑하옵 어머니



1. 사랑하옵 어머니여 우리 위로 자시여 고귀하온 동정녀여 우리
2. 모든 근심 슬픔 들이 우리 괴롭힐 때에 기쁨이신 마리아여 우리
3. 깊은 사랑 크신 자비가 이 없이 주시는 어머니와 한 맘으로 우리



보호하소서
도와주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
살게 하소서



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직영·수탁시설
시설장·부장
연 수

신앙의해 선포의 배경과 의미

[부록]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신앙의 해’ 선포의 배경과 의미

| 박선용 신부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목 차

들어가는 말

I. 신앙의 해 선포의 배경

1.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이해
2.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분야들 : 오늘날 신앙 위기의 배경
3.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여정 : 신앙 쇄신
 - 1)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 신설
 - 2)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최 :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 3) 신앙의 해 선포

II. 신앙의 해 선포의 의미

1. 신앙의 해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
2. 신앙의 해에 유용한 교육 도구
 - 1) 신앙의 해 개막일의 상징적 의미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문헌과의 연결성
 - 3)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의 연결성

III. 신앙의 해를 위한 실천적 제안: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신앙교리성 공지

1. 공지 작성의 배경과 구성
2. 사목 권고의 목적과 구성
3. 보편교회 차원에서
4. 지역 주교회의 차원에서
5. 교구 차원에서
6. 본당/공동체/단체 차원에서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10월 11일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발표하면서 ‘신앙의 해(Year of Faith)’를 선포하였다.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1년 동안 계속된다.

이에 앞서 교황은 이미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The New Evangeliz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the Christian Faith*)라는 주제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를 소집한 상태이며, 이 회의는 2012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되므로 사실상 ‘신앙의 해’를 여는 개막 행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신앙의 해’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황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신앙의 해’를 통해 잃어버린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신앙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황은 ‘신앙의 해’를 지내는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정을 위한 가장 좋은 신앙 교육 교재로 2000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체험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종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아울러 공의회 정신 구현의 진정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서’를 주의 깊게 연구,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나아가 교황은 사목 현장에서 ‘신앙의 해’를 지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앙교리성을 통해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준비시켰는데, 이 내용은 보편교회와 지역 주교회의, 교구, 본당(및 단체) 등을 위해 각각 10가지씩, 모두 40개 항목의 권고들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개요」(*Lineamenta*)와 ‘신앙의 해’ 반포 교황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신앙교리성의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중심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늘날 가장 시급한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로 선택한 신앙 쇄신의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I. 신앙의 해 선포의 배경

1.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이해¹⁾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앙 쇄신을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여정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명의 우선적 과제이며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사목현장에서 개념적으로 많은 혼선을 빚어온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한다.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은 ‘선교’ (*missio*) - ‘복음화’ (*evangelizatio*) - ‘새로운 복음화’ (*nova evangelizatio*)로 이어지는 그 용어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은 16세기 식민지 선교 역사의 과정에서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복음화’라는 개념으로 수렴되었다. 이후 급변하는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면서 1980년대 이후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기능적 혹은 방법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을 모토로 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으로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본질이며, 따라서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선교의 개념은 대단히 폭넓은 이해를 담고 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만난

1)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11) 제2장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및 내적 쇄신과 변화, 하느님과의 친교 및 이웃과의 친교와 나눔 등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식민 선교 역사를 거치면서 선교는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었다. 당시 선교는 식민지 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유럽의 문화를 비유럽권에 이식하는 일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교의 의미가 단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교파에 속하게 하는 양적인 확장을 뜻하게 되었다. 이에 선교 활동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비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려는 일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는 주-객 도식이 전제되어 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보유한 교회가 주체가 되고 비그리스도인을 객체, 즉 대상으로 삼아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서구교회의 우월한 자세가 견지된다.

근세 이후 서구 문화의 일방적인 수출 형태를 지녔던 이러한 선교 방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반성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복음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축소 왜곡된 ‘선교’ 개념보다 오히려 ‘복음화’라는 단어가 더 적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음화’의 개념은 교회가 선포자의 능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청중과 제자로서의 수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강조되면서 ‘만민 선교’의 사명과 동시에 ‘교회 자신의 복음화’의 사명이 강조된다. 그뿐 아니라 단순한 선포의 개념을 넘어 “복음화는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반대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방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데 있다”(『현대의 복음선교』, 18-19항)고 선언하면서 토착화와 사회복음화의 영역까지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복음화는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삶의 증거로 선포되어야 함이 강조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복음적 생활 그 자체가 복음화 활동으로까지 확장된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복음화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 기능 혹은 방식에 있어서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오늘날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서 새 길을 내는 것이기에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해야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동과 그 여파로 특히 유럽 교회에서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와 무신론 등의 영향으로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차원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복음화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개념이라면, 새로운 복음화는 본질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 내지 방식에 더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복음화는 내용(what)에 관한 물음이고, 새로운 복음화는 방법(how)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분야들 : 오늘날 신앙 위기의 배경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개요」(*Lineamenta*) 6항에서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분야들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영역은 곧 우리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현상이고 신앙 위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의제개요는 문화, 사회, 대중 매체, 경제, 과학, 시민 생활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소개한다.

1) 문화 분야 (세속주의)

문화 분야에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세속주의를 꼽는다. 세속주의는 주로 서구 사회와 관련되지만, 사실 이는 서양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속주의는 반()그리스도적이고 반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지만, 이에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점령하여 하느님이 배제된 사고방식을 부추긴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 문화로서, 교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간학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2) 사회 분야 (이민, 세계화에 따른 민족들의 혼재)

사회 분야에서는 도시, 국가, 대륙별 민족의 짜임새를 바꿔놓고 있는 대규모 이민 현상을 지적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화 혼재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근본 기준들이 흐려지고, 우리가 의미를 두며 추구하던 가치들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세계화 현상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식별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컴퓨터 혁명은 교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는 그 자체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내재적 위험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귀착점은 덧없는 새로움, 순간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 다시 말해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사회의 형성이다.

4) 경제 분야

경제 분야는 경제적 위기, 곧 경제 정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면, 자원의 접근과 배분에서 북반부와 남반구가 불균형 성장을 보이며 창조에 해를 입히게 된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지속적인 경제 위기는 물질적 힘을 사용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질적 힘만으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더욱 많은 정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세계 시장의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처지에서 시작하여 더욱 깨어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5) 과학 분야

과학과 기술 연구 분야는 사실 오늘날의 새로운 이상, 새로운 종교가 될 위험이 있다. 지식과 의미가 삶을 비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데에서 얻어져 기술이 그 자체로 일종의 철학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앎(gnosis)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새로운 사이버 종교 집단들이 생겨나 종교적 실천을 부요와 순간적 만족만을 쫓는 병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6) 정치 분야

지난 수십 년의 시대적 변화들을 담고 있는 정치 분야도 하나의 도전이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그동안 돌로 갈라진 서방 세계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으며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지역 교회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 경제, 종교 분야의 새로운 동인들이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와 같은 지역에서 세계 정치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알지 못하던 유례없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배와 권력의 새로운 유혹과 걱정스러운 위험도 가득하다.



3.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여정 : 신앙 쇠신

이런 변화들에 접하는 첫 번째 반응은 혼란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이 변화의 순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질문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많은 내부적, 외부적 원인과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도, 특히 이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오늘날의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하였으며,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결정하여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로서 “신앙의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 주교 시노드의 주제를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로 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신앙의 해”를 선포하여 신앙 위기에 처한 교회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신앙 쇠신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1) ‘새복음화촉진평의회’의 신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0년 9월 21일 교황 교서 「언제나 어디서나」(*Ubicumque et Semper*)를 통하여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하였다. 이 교서에 따르면, 복음화의 사명은 교회의 본성 자체인데, 최근 우리 시대에 이르러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특히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종국에는 신앙 포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당면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교서는 ‘새로운 복음화’가 특별히 오래 전에 설립된 교회들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면서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황청의 다른 부서와 기구들과 협력하면서, 특별히 세속주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지역의 개별 교회들을 위해 활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개최 :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2011년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2012년 10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주제를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로 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신설의 배경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 즉 교황은 새로운 복음화

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의제임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복음화 활동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로서 “신앙의 전수” 문제를 꼽은 것이다. 이는 특히 유럽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무신론, 종교 냉소주의, 탈그리스도교, 세속주의, 상대주의 등 서구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앙의 해 선포

그뿐 아니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를 발표하시며 “신앙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 역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와 신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최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의 교서 「믿음의 문」 2항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처음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저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사회생활의 자명한 전제라고 여기면서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자기 일의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이 전제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종종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일한 문화 구도가 있어 그 전제가 신앙의 내용과 그 영감을 받은 가치들에 호소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깊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I. 신앙의 해의 의미

1. 신앙의 해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교황 스스로 교황직을 시작한 이래 마음에 줄곧 간직하고 있었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에 교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신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바탕을 둘 때, 신앙은 그 온전함과 모든 광채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의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참조)이라고 할 수 있다(「믿음의 문」, 2항 참조).

이러한 만남을 위한 여정은 자연스럽게 신앙 쇄신의 여정이 된다. 따라서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신앙의 해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서고 신앙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의 세상에서 증언하고, 신앙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믿음의 문」, 6항 참조).

이러한 신앙 쇄신 여정의 첫 걸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며 이를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 14). 바로 우리 마음에 가득차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다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은총과 기쁨의 경험으로 믿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준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믿음은 듣는 이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그들이 당신 말씀을 따르고 당신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믿는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강해진다”(「믿음의 문」, 7항 참조).



또한 믿음의 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동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행위와 우리가 동의하는 신앙의 내용의 깊은 일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 10).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공적인 증언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고백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위이다(「믿음의 문」, 10항 참조).

아울러 신앙 쇄신의 여정에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신앙의 유산을 전해준 신앙의 증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의 해에 먼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 2)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의 깊이를 체험한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신앙을 증거해 온 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믿음의 문」, 13항 참조).

“믿음으로, 성모님께서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순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라는 예고를 믿으셨다.

믿음으로,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스승을 따랐다. 그들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 주시고 완성하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말씀을 믿었다(루카 11, 20 참조).

믿음으로 제자들은, 첫 공동체를 이루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찬례를 거행하고 가진 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사도 2, 42-47 참조).

믿음으로, 순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믿음으로, 복음적인 단순함 속에 순명과 청빈과 정결의 삶을 살고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이 있다.

믿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다.

믿음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고백해왔다.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인식하며 살아간다”(「믿음의 문」, 13항 참조).



신앙의 해는 또한 더욱 힘차게 사랑을 증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그분을 도와주도록 재촉한다(「믿음의 문」, 14항 참조).

이처럼 은총의 선물로 받은 신앙에 우리 모두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더욱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평생의 동반자이다. 현재의 역사 안에서 이 시대의 표징을 바라보도록,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주님 현존의 살아있는 표징이 되라고 당부한다. 오늘날 세상에 특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다. 이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 마음과 정신을 열도록 할 수 있다(「믿음의 문」, 15항 참조).

2. 신앙의 해에 유용한 교육 도구

1) 신앙의 해 개막일(10월 11일)의 상징적 의미

신앙의 해의 시작은 오늘날 교회 생활의 핵심인 위대한 두 사건의 기념일과 일치한다. 곧 하나는 복자 요한 23세 교황이 1962년 10월 11일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일이며, 다른 하나는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2년 10월 11일 교회에 선사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 기념일이다. 이는 신앙의 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근본 정신을 계승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공의회 정신 구현의 진정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신앙 쇄신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믿음의 문」, 4항 참조).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문헌과의 연결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문헌이 지니는 본질적 성격은 신앙에 관한 내용이며 동시에 이를 종합한 교리서이다. 즉 공의회는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며”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계시 헌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교회의 내밀한 본성과”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교회가 우리 시대와 맺는 관계”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공의회는 네 개의 헌장을 기둥으로 하면서 시대의 주요 사안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교령과 선언들을 마련한 것이다(신앙의 해 공지, 서론 참조).

공의회 이후 교회는 교도권의 확고한 지도 아래, 또 모든 성전과의 연속성 안에서 공의회에 풍요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의회에 올바른 수용을 돕고자 교황들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였고, 그때마다 후속 교황 권고들을 통하여 교회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왔다(신앙의 해 공지, 서론 참조).

따라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에 맞추어 ‘신앙의 해’를 시작하는 것이 공의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게 되었다.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대로 공의회 교부들이 유산으로 남긴 문헌들은 그 가치나 광채가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문헌들은 올바르게 읽혀져야 하며,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도권의 중요한 규범적 문헌들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공의회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학에 따라 읽고 이해한다면, 공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교회의 쇄신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믿음의 문」, 5항)라고 밝힌다.



3)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의 연결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2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기념하고자 소집된 1985년 세계주교대 의원회의 임시총회는 하느님 백성에게 모든 가톨릭 교리의 요약이 되고 지역 교리서 편찬 때 확실한 증거들을 제공하는 교리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침내 이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30주년을 맞은 1992년 10월 11일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으로 반포되었다(신앙의 해 공지, 서론 참조). 따라서 가톨릭교회 주교단 전체의 협력을 얻어 편찬한 “이 교리서는 참으로 신앙의 교향곡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신앙의 유산」, 2항).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진정한 결실’ 이면서 이를 받아들여도록 돕는 도구인 것이다. 이 교리서는 ‘새것’과 ‘옛것’을 모두 담고 있다. 신앙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며 또 언제나 새로운 빛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한편으로는 교리 교육의 전통적인 ‘옛’ 순서를 이어받아 ‘신경’, ‘전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시대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그 내용을 자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신앙의 해 공지, 서론 참조).

“이처럼 그 구조 자체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교리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 제시된 것이 이론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분과 이루는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신앙 고백에 이어 성사생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성사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며, 당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 전례와 성사들이 없다면 신앙 고백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은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 생활에 관한 이 교리서의 가르침은 신앙과 전례와 기도와 관련할 때에 비로소 그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믿음의 문」, 11항 참조).



따라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며 교회의 친교를 위해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이다”(『신앙의 유산』, 4항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해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신앙의 근본 내용을 재발견하고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교리서에서 교회가 이천년의 역사 동안 받아들이고 지키고 제공했던 가르침의 풍요로움이 흘러나온다. 성경에서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또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신학자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서는 교회가 신앙에 관하여 성찰하고 교의를 발전시켜 온 수많은 방법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갖도록 해 줄 것이다”(『믿음의 문』, 11항 참조).

III. 신앙의 해를 위한 실천적 제안 :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신앙교리성 공지

1. 공지 작성의 배경과 구성

신앙교리성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지시에 따라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마련하였다. 이 공지는 성좌의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고 ‘신앙의 해 준비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공지는 2012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승인받아 1월 7일에 공포되었다. 공지의 구성은 서론과 그에 뒤따르는 몇 가지 사목 권고가 담겨있다.

서론은 신앙의 해 선포의 목적과 시작일(10월 11일)의 상징적 의미,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일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 기념일을 설명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에 관한 내용의 풍요로움을 설명한다. 나아가 신앙의 해가 신앙의 내용의 보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 깊고 넓고 풍요롭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 뒤따르는 몇 가지 사목 권고는 구체적으로 보편교회 차원, 주교회의 차원, 교구차원, 본당/공동체/단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각 10가지씩 제안하고 있다.

2. 사목 권고의 목적과 구성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가톨릭 교회 교리서』, 150항)이다. 주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인 신앙과 우리가 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들은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체험된 신앙과 그 내용은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증인들과 증거자들의 신앙은 교회의 사도들과 박사들의 신앙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해를 위한 몇 가지 사목적 권고를 제시하는 목적은 “신앙의 참 증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신앙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공지는 이 권고들을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보편 교회 차원, 둘째, 주교회의 차원, 셋째, 교구 차원, 넷째 본당, 공동체, 단체 차원이다.

3. 보편 교회 차원에서

(1) 개막행사

-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 :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 신앙의 해 개막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 기념일)

(2) 베드로좌(로마) 순례와 성도(예루살렘) 순례 권고

(3) 성모 신심 권유 및 주요 성모 순례지 순례 권고

(4) 세계 청년 대회 개최 (2013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5) 신앙의 참 증인들과 만나는 자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 재발견을 위한 회의, 가톨릭 교리 이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회의 모임 주관
-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요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학습 권고
- (7) 교황님의 강론, 교리교육, 담화, 연설, 문헌 학습 권고
- (8) 다양한 교회일치 운동 및 행사 개최
- (9) 교황청 새복음화촉진위원회 안에 신앙의 해 사무국 신설 및 웹사이트 개설
- (10) 폐막식

4. 주교회의 차원에서

- (1) 신앙을 주제로 한 연구의 날 마련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출판 및 보급
-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자국어 번역 및 선교 지역의 번역 사업 지원
- (4) 신앙과 그 원칙들과 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제작 및 보급
- (5) 신앙의 참 증인들로서의 지역 교회의 성인들에 대한 홍보 강화
- (6) 지역 교회의 예술 자산을 교리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
- (7) 교육자들 편에서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과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 (8) 신학자들의 도움으로 호교론적 성격의 책자와 리플릿 준비. 특히 다종교 사회에서의 협력의 가능성, 세속화, 상대주의, 종교와 과학 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 (9) 지역교회의 교리서와 교리교육 자료들이 보편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합치하는지 확인
-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을 신학교와 교과과정과 사제양성 지침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5. 교구 차원에서

- (1) 신앙의 해 개막식과 폐막식 개최
- (2)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날 행사 마련
- (3) 신앙을 주제로 한 사목교서 마련
- (4) 신앙의 증인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날> 행사 마련
- (5)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활용 정도 확인
- (6) 사제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기회 마련. 예컨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포’, ‘교회-구원의 성사’,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 복음화 사명’, ‘신앙과 불신앙’, ‘신앙과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신앙과 영원한 생명’, ‘지속성 안에서 개혁의 해석학’, ‘일상의 사목 안에서의 교리교육’ 등의 주제로.
- (7) 사순시기에 신앙과 관련한 참회 여행
- (8) ‘신앙과 이성(과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토론회, 연구의 날 개최
- (9) ‘이민족의 뜰 대화’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만남) 기회 마련
- (10) 가톨릭 학교들 차원에서의 『가톨릭교회 교리서 요약편』과 『가톨릭 청년 교리서』 교육 실천

6. 본당/공동체/단체 차원에서

- (1) 신앙의 해 선포 교황 자의교서 ‘믿음의 문’ 교육
- (2) 신앙의 해와 성찬례와 관련한 교육 및 성찬례 참여 권장
- (3) 사목자 차원에서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학습 및 사목적 활용 권장
- (4) 교리교사 차원에서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학습 권장
- (5) 신앙 전수의 첫 번째 장소인 가정을 위한 신앙 교육 자료 보급
- (6)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선교와 기타 프로그램 증진

- (7) 봉헌생활화와 사도생활단 차원에서의 신앙의 해를 위한 노력
- (8) 관상공동체 차원에서의 신앙의 해를 위한 노력
- (9) 교회 운동과 단체들 차원에서의 신앙의 해를 위한 노력
- (10) 모든 신자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노력

나오는 말

지금까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의 해를 선포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베네딕토 16세가 즉위 초기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신앙 쇄신의 여정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체험한 유럽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복음화 촉진평의회’의 신설, “새로운 복음화와 신앙의 전수”를 주제로 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개최, <신앙의 해>의 선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늘의 교회와 세상에 던지는 하느님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의 영향으로 하느님에 대한 담론 자체가 외면 받는 현실에서 교황의 행보는 담대한 거보이다.

한국교회 역시 이제는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여러 지표들로도 위기의 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온다.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앙의 해가 신앙 쇄신의 여정, 특히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체험하고 전수해 온 신앙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흐트러진 신앙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